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8월
석사 학위 논문

<강릉매화타령>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안 지 혜

<강릉매화타령> 연구

A study on Gangneungmaehwataryeong

2019년 8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안 지 혜

<강릉매화타령> 연구

지도교수 이 상 원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안 지 혜

안지혜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 | |
|-----|------------|
| 위원장 |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
| 위원 | 조선대학교 교수 |
| 위원 | 조선대학교 교수 |

김수중 (인)

엄태식 (인)

이상원 (인)

2019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차

ABSTRACT

| | |
|---------------------------------------|----|
| I. 서론 | 1 |
| 1. 연구 목적 | 1 |
| 2. 연구사 검토 | 2 |
| II. <강릉매화타령>의 형성과정 | 8 |
| 1. <강릉매화타령>의 근원설화 | 8 |
| 2. <강릉매화타령>의 사실정착본 | 20 |
| 3. 근원설화와 사실정착본의 비교 | 27 |
| III. 책방 골생원에 주목한 <강릉매화타령>의 주제의식 | 31 |
| 1. 책방 골생원의 형상화 양상 | 31 |
| 1) 서술자의 시선으로 그려진 골생원의 모습 | 31 |
| 2) 등장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 골생원의 모습 | 37 |
| 3) 작품 내에서 골생원을 바라보는 시선 및 의의 | 43 |

| | |
|------------------------------|----|
| 2. 조선후기 책방의 존재와 <강릉매화타령>의 주제 | 46 |
| IV. <강릉매화타령>의 판소리사적 의의 | 58 |
| v. 결론 | 62 |
| 참고문헌 | 65 |

ABSTRACT

A study on Gangneungmaehwataryeong

An Ji Hae

Advisor : Prof. Lee Sang-won, Ph.D.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revealed its meaning by noting that during the transition of the GangneungMaehwaTaryeong from source theory to pansori, the person who is deceived is finally portrayed as the originator of a chaekbang.

Those who are deceived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source theory to pansori are portrayed as negative and critical figures. Finally, it is portrayed as a “cultivation of a chaekbang.” History records showed why the person who was deceived was depicted as a chaekbang and what a chaekbang was like. As a result, bookshops are those who take the leader when he leaves the foreign office and are not part of the bureaucracy. However, he took charge of the document and accounting affairs by helping the recipient receive it from his close aides. When it was in charge of accounting, the bookstore had frequent exchanges with Ah-Jon and officials. At this time, he caused a number of problems, including embezzling the country's public funds with them. Also, thanks to the power of the leader, he did not hesitate to torment the people in order to benefit himself.

These historical records are written by the aristocrats, who can be said to contain the concerns that chaekbang confuse society and destabilize the system. As the aristocrats feared, the tyranny of the chaekbang made life difficult and impoverished, and the people's anger and resentment toward the chaekbang grew. In reality, however, there was nothing the people could do about a chaekbang under the power of the leader. Instead, the people tried to solve the anger and discontent of reality by appearing in their literary pansori, making them negative and critical figures and satirizing and comicizing them. The existence of a chaekba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viewed negatively not only by aristocrats but also by the people.

After focusing on the character Golsaengwon, I realized that GangneungMaehwaTaryeong is a story that reflects the reality of the times and shows conflicts and conflicts in society. Furthermore, this new interpretation presents a new interpretation of other real-life pansori works. If you look at GangneungMaehwaTaryeong, BaebijangTaryeong, and MukuniTaryeong, all three works have something in common: middle-class people are the ones who want to criticize. This can be understood as a reflection of society's negative and critical views of the middle class of the day.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논문은 실전 판소리 가운데 하나인 <강릉매화타령>을 근원설화와 비교하여 전승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를 분석하고, 그 차이 중에 속임의 대상 즉 기생의 상대역으로 ‘책방(冊房)’ 골생원이 등장한 것에 주목해 그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강릉매화타령>은 소리를 잃어버린 판소리로, 정확히 전해지는 창과 사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문헌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을 뿐 깊은 연구는 어려웠다. 이후 1993년 <강릉매화타령>의 사설정착본으로 볼 수 있는 <梅花歌라>(이하 <매화가>로 약칭)의 발견¹⁾과 뒤이어 <강릉매화타령>의 새로운 이본인 한글필사본 <골생원전이라>(이하 <골생원전>으로 약칭)의 등장²⁾으로 이전보다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판소리는 대부분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때문에 판소리에 관해 연구한 것을 살펴보면 근원설화에서 판소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주목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독 <강릉매화타령>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물론 전해지는 창과 사설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설정착본 <매화가>와 <골생원전>이 발견된 이후에도 소개 정도의 논문으로 그치고 있을 뿐 근원설화에서 판소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필자는 근원설화에서 판소리 <강릉매화타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 양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인물, 모티프, 주제지향점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근원설화와 판소리 <강릉매화타령>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다

1) 김현선, 「〈강릉매화타령〉 발견의 의의」, 『국어국문학』 109, 국어국문학회, 1993.

2) 김석배, 「〈강릉매화타령〉의 판짜기 전략」, 『문화와 융합』 26, 한국문화융합학회, 2004.

음으로 비교한 결과를 근원설화에 있는 것이 <강릉매화타령>에 그대로 드러난 부분, 근원설화에는 있으나 <강릉매화타령>으로 전환되면서 사라진 부분, 근원설화에는 없으나 <강릉매화타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중 근원설화에서 판소리 <강릉매화타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변모의 양상에 특히 주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강릉매화타령>은 판소리 열두마당 가운데 소리를 잃어버린 실전 판소리 일곱마당 중 하나로, 창과 사설이 모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9세기 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여러 문헌에서 인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강릉매화타령>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사설정착본이 발견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사설정착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간단한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강릉매화타령>의 내용을 추정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다. <강릉매화타령>이 언급된 문헌들로는 『낙하생고(洛下生稿)』(1821)에 수록된 이학규(李學逵, 1770-1835)의 시와 부기(附記), 송만재(宋晩載, 1783-1851)의 <관우희(觀優戲)>(1843) 제12수, 조재삼(趙在三, 1808-1866)의 『송남잡지(松南雜識)』(1855), 신재효(申在孝, 1812-1884)의 <오섬가(烏蟾歌)>, 정현석(鄭顯奭, 1817~1899)의 『교방가요(教坊歌謠)』(1872), 정노식(鄭魯湜, 1891-1965)의 『조선창극사(朝鮮唱劇史)』가 있다.

이해구는 이러한 문헌 기록들 중 송만재의 <관우희>에 수록된 시를 근거로 하여 그것들이 <강릉매화타령>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³⁾ 또한 강릉 지방에서 내려오던 <홍장고사>나 전설들이 <강릉매화타령>의 핵심적인 줄거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고, 나아가 신재효의 <오섬가>도 언급했다. 김동욱은 여기에 조재삼의 <송남잡지>를 덧붙여 언급하면서 <강릉매화타령>의 실체를 밝히려고 했다.⁴⁾

한편 김기동, 정흥모 등은 <강릉매화타령>의 줄거리와 유사한 내용의 작품들에

3) 이해구, 「송만재의 관우희」, 『한국음악연구』, 국민음악연구회, 1957.

4)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기동은 <강릉매화타령>과 내용면에서 비슷한 <오유란전>과 <종옥전>을 소개하면서 한문소설인 <오유란전>을 <매화타령>의 사설이 소설화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강릉매화타령>은 강릉지방 전설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으며, <오유란전>, <종옥전>, <배비장전>은 판소리 <강릉매화타령>을 바탕으로 했으나, 소설 속 요소들을 바꾸고 흥미 있는 플롯을 삽입시키는 등 새롭게 바꾼 소설이라고 했다.⁵⁾

정흥모는 <강릉매화타령>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릉매화타령>의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적으로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묶어 강릉매화타령형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분류시켰다. 이 분류에 따르면 강릉매화타령형 이야기는 기생에 혹하여 망신당하는 선비, 계략에 빠져 산사람을 죽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의 두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강릉매화타령>은 이를 토대로 다양하게 사건을 전개시키고, 전승과정에서 판소리의 여러 가지 장면처리가 추가되면서 양반풍자를 강화했다. 하지만 19세기에는 판소리의 향유층 가운데 양반층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시기였기 때문에 양반풍자의 성격이 강한 <강릉매화타령>은 실전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⁶⁾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강릉매화타령>의 사설정착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일부 언급된 문헌들을 통해 대략적인 연구만이 가능했다. <강릉매화타령>의 실제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헌기록만을 통한 연구들은 <강릉매화타령>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매화타령>에 대한 연구는 작품 자체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학사적내지 판소리사적 위상을 파악하는 부분에서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러던 중에 1993년 김현선에 의해 <강릉매화타령>의 사설정착본인 <매화가>가 소개되었다. 김현선은 <매화가>를 소개하는 논문에서 지금까지 전하는 단편적인 문헌자료들과 <매화가>를 비교했을 때 그 둘 사이에 인물의 일치, 사건의 일치, 주제의 일치 등 유사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또한 <매화가>속에 나타난 삽입가요나 수사적 장치, 판소리적 인물의 등장, 시정세대 반영 등 판소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매화가>가 실전된 판소리 사설 <강릉매화타령>임을 입증했다.⁷⁾

이후 2002년 김석배에 의해 <강릉매화타령>의 새로운 이본인 한글필사본 <골생

5)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892-895면.

6) 정흥모, 「강릉매화타령형 이야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7) 김현선, 「〈강릉매화타령〉 발견의 의의」, 『국어국문학』 109, 국어국문학회, 1993.

원전>이 소개됨에 따라 이전보다 <강릉매화타령>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김석배는 <골생원전>이 뒷부분 일부가 낙장된 결본임에도 불구하고 <매화가>보다 내용이 풍부하고 사실 내용에서도 또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골생원전>을 19세기 후기에 판소리로 불리던 <강릉매화타령>의 사실이 정착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매화가>에서 발견되지 않았거나 확대된 모습을 <골생원전>에서 살펴봄으로써 <골생원전>이 <매화가>보다 후대에 나온 이본임을 밝혔다.⁸⁾ 나아가 구성과 내용면에서 유사한 대목이 많은 <춘향가>, <배비장타령>을 <강릉매화타령>과 비교하여 교섭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 사랑대목, 이별대목, 망신대목 등 많은 부분에서 교섭이 일어났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러한 교섭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더욱 활발해져 결국에는 <강릉매화타령>이 독자성을 잃어버리고 소리판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을 것이라 말했다.⁹⁾

한편 두 종의 사실정착본이 발견됨에 따라 각각의 작품에 주목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정미는 <매화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구조 및 인물들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매화가>는 표면적으로는 주색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제를 드러내지만 이면에는 골생원 속이기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 때문에 <매화가>의 주제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개인의 문제로 종결된 것이고 <강릉매화타령>이 창을 잃은 이유 또한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파악했다.¹⁰⁾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이 <매화가>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하는 “어와 世上사암덜아, 骨生員으로 불지아도 쥬삭탐을 부디 마소”¹¹⁾를 바탕으로 <매화가>의 주제를 주색을 경계하라는 것으로 보고 연구해 온 것을, 골생원이라는 인물로 의미초점을 옮겨 <매화가>의 주제를 골생원을 속여서 재미보기로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 조금 더 나아가 골생원에게로 초점을 맞추어 주제 의미를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매화가>의 주제를 골생원을 속여서 재미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끝나고 만다. 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골생원을 속여 재미보기라는 주제는 여색을 밝히는 골생원을 속여서 골탕 먹인다는 점에서 결국 기존 연구들이 보여주던 주제인 주색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왜 골생원을 속이려고 했는지에서 더 나아가 골생원을 골탕

8) 김석배, 「골생원전 연구」, 『고소설연구』 14, 한국고소설학회, 2002.

9) 김석배, 「<강릉매화타령>의 판짜기 전략」, 『문화와 융합』 26, 한국문화융합학회, 2004.

10) 한정미, 「<梅花歌라>의 전반적 이해」, 『판소리 연구』 10, 판소리학회, 1999.

11) 김기형 역주, 『적벽가·강릉매화타령·배비장전·무속이타령·옹고집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129면.

먹이는 대상으로 삼은 민중의 의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지 못한 것이 아쉬움을 남긴다. 때문에 필자는 골생원을 속여서 재미를 보는 것에서 나아가 왜 골생원을 속이려고 했으며 골생원이 골탕을 당하는 대상이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문성은 <강릉매화타령>의 문헌기록들과 현전하는 두 이본의 사설을 대상으로 작품 속 인물들의 작명과 형상화를 살펴 그 의미를 찾고, 그것이 작품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으며 어떤 한계를 보여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강릉매화타령>의 판소리사적, 문예사적인 의의를 밝혔다.¹²⁾

한편 김헌선, 인권환은 <강릉매화타령>의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강릉매화타령>의 형성과 실전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김헌선은 <강릉매화타령>의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형성과정을 살피는 논문에서 <강릉매화타령>은 흥장암전설에 <혹기위귀> 설화 등과 같은 것이 첨가되어 판소리 사설로 정착한 작품이라고 했다. 이는 <강릉매화타령>과 내용이 비슷한 근원설화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강릉매화타령>이 다른 판소리와 다르게 전승에서 탈락된 것이라고 말했다.¹³⁾

인권환은 실전 판소리 <강릉매화타령>, <무속이타령>, <옹고집타령> 등을 대상으로 각 사설의 근원과 형성과정, 고소설과의 관련 양상, 인물형과 주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¹⁴⁾ 이 논문에서 <강릉매화타령>의 사설정착본인 <매화가>의 근원설화로 볼 수 있는 8종을 전부 살피고, 각각 A형(妓弄官長의 애정담, 풍류담), B형(妓弄官長의 남성훼절담, 풍자담), C형(B형에 새로운 삽화가 추가됨)으로 유형을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 분류를 바탕으로 <매화가>의 가장 직접적인 근원이 되는 설화는 <혹기위귀>와 <강릉흥장설화>라 말했다. 또한 <매화가>와 비슷한 줄거리를 가진 소설 <오유란전>, <종옥전>도 함께 근원설화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들을 C형의 근원설화로 분류하고, <강릉매화타령>이나 같은 류의 이야기에서 <오유란전>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 이를 바탕으로 <종옥전>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김종철 또한 <강릉매화타령>의 실전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¹⁵⁾ 그는 19세기에 와

12) 이문성, 「인물작명과 골생원의 형상으로 본 <강릉매화타령>」, 『판소리 연구』, 판소리학회, 2010, 265-291면.
 13) 김헌선, 「<무속이타령>과 <강릉매화타령> 형성 소고」, 『경기교육논총』 3, 경기대 교육대학원, 1993.
 14) 인권환, 「失傳 판소리 사설 연구 : <강릉매화타령>, <무속이타령>, <옹고집타령>을 중심으로」, 『동양학』 2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6, 69-84면, 106-107면.
 15) 김종철, 「창을 잃은 판소리를 중심으로」,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233-289면.

서 판소리 12마당 중에서 5마당만 전승되고 나머지 7마당이 전승에서 탈락한 것을 살펴보는 것은 19세기의 판소리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창자, 향유층, 작품, 사회사 등을 검토하고 전승 5가와 창을 잃은 7가를 서로 비교하여 7마당이 더 이상 전승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는 7마당이 창을 잃은 이유로 향유층이 변화하고 향유하는 의식 또한 변화가 생겼으며, 작품을 살펴보았을 때 7마당이 작품의 질적 수준이 5마당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전승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나아가 전승과 탈락을 결정짓는 것은 작품군에 전일(全一)한 무엇 때문이라고 했는데, <강릉매화타령>은 비슷한 작품인 <배비장타령>과 함께 전승과정에서 시대적으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되었다고 말했다.

<강릉매화타령>에 대한 기존 연구사들을 살펴본 결과 사설정착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전해지는 창과 사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단편적인 기록을 통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가진 이야기들과의 비교를 통해 대략적으로만 <강릉매화타령>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확히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쩌다가 창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서 판소리사적으로도 많은 아쉬움이 존재했다. 그러다가 사설정착본 <매화가>와 <골생원전>이 발견된 이후 그것들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분석, <강릉매화타령>에 대한 형성과 실전문제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사설정착본의 등장은 <강릉매화타령> 그 자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나아가 <춘향가>, <배비장타령> 등과 같은 다른 판소리와 활발히 교섭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강릉매화타령>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보면 사설정착본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소리의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부족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판소리들은 작품 자체를 분석하여 살펴거나 근원설화와 비교하여 연구하거나 또는 다른 유사한 내용의 판소리와 어떻게 교섭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등 다방면에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강릉매화타령>은 사설정착본 등장 이후에도 간략하게 작품을 소개하고 있거나 혹은 작품자체를 살펴본 몇 개의 연구만 존재할 뿐, 그 이상의 연구는 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판소리라는 장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강릉매화타령>을 감안할 때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떤 점에서 변화가 생겼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핵심에 다가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릉매화타령>을 살펴보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

인 골생원, 속임을 계획하는 사람인 강릉부사, 직접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인 기생이 나타난다. 이러한 세 인물의 구조는 <강릉매화타령>의 근원설화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세 인물 중 속임을 계획하는 인물과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인물은 큰 변화가 없음에 비해 속임을 당하는 인물은 지속적인 변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 왜 전승과정에서 속임을 당하는 사람만 바뀌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당시 전승집단이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야기의 전승자들은 바라는 욕망이나, 비판하고자 하는 것들 즉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에 반영하게 한다. 그리고 전승집단이 원하는 바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데, 필자는 근원설화 속에서 보이지 않던 골생원이 등장한 것은 바로 골생원이 당시의 전승집단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을 반영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강릉매화타령>에서 많고 많은 신분들 중에 속임을 당하는 자가 왜 책방으로 그려지는가에 대해 궁금함이 들었다. <강릉매화타령>에서 속임을 당하는 골생원의 직책이 책방인 것 또한 바로 당시 전승집단의 비판적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과연 조선후기 책방은 민중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기존 연구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필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근원설화와의 꼼꼼한 비교를 통해 19세기 초반부터 확인되는 <강릉매화타령>이 형성과정에서 어떤 것이 탈락하고 어떤 것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어떤 것이 새로 확인되는지를 인물, 모티프, 주제지향점에 기준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또한 비교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수많은 인물들 중 왜 ‘책방’이라는 직업을 가진 골생원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주목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조선후기 사회에서 판소리를 향유하던 민중들에게 과연 책방은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파악해 볼 것이다.

Ⅱ. <강릉매화타령>의 형성과정

1. <강릉매화타령>의 근원설화

앞서 살펴본 연구사를 통해 <강릉매화타령>의 형성을 근원설화와 관련해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정확한 사설정착본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근원설화와 그와 비슷한 내용의 소설들이 <강릉매화타령>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이야기되던 가운데 1985년 정흥모에 의해 근원설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검토와 함께 새롭게 작품론적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는 구비, 문헌설화인 <박신일화>, <풍류진중일어사>, <질옥>, <혹기위귀>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오유란전>, <종옥전> 등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강릉매화타령>의 형성과 소설이 되어가는 과정을 파악했다. 나아가 <강릉매화타령>과 비슷한 내용을 가진 이야기들을 ‘강릉매화타령형 이야기’로 칭하고 묶어 논하였다.¹⁶⁾ 그의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강릉매화타령>을 새롭게 문화사적, 판소리사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본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이 연구는 사설정착본이 발견되기 전에 나온 것으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측과 가정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한편 사설정착본 <매화가>가 발견된 이후 김헌선은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강릉매화타령>을 파악하였다. <강릉매화타령>은 일반적인 판소리들처럼 근원설화가 다양하게 있고 근원설화들 간에 이야기 구조의 공통점이 비교적 많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그는 흥장고사로 알려진 <경포호순상인선연>, <혹기위귀>, 이해구 채록 구전설화¹⁷⁾와 <강릉매화타령>을 비교하여 <강릉매화타령>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생이 가짜로 죽고, 가짜무덤을 만들어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믿게 한 후 기생을 귀신으로 가장시켜 스스로 귀신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

16) 정흥모, 「강릉매화타령형 이야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17) 강릉흥장설화는 논자에 따라 이해구 채록 구전설화(김헌선), 강릉지역전설(인권환) 등으로 다르게 불리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강릉흥장설화로 통일하기로 한다.

이고, 마지막에 잔치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망신을 당하게 하여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는 근원설화의 내용이 뒷부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근원설화 가운데 많은 것들이 강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강릉매화타령>이 강릉이라는 지역에서 형성된 흥장암전설에 <흑기위귀> 같은 설화가 더해져 지금의 <강릉매화타령>이 완성된 것이라고 보았다.¹⁸⁾

인권환은 <강릉매화타령>의 근원설화나 파생설화로 추측되는 8종을 모두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문헌설화류에는 <박신일화>, <질욕>, <경포호순상인신록>, <금아이영증속록>, <흑기위귀>, <풍류진중일어사>가, 구비민담류에는 <강릉지역전설>¹⁹⁾, 여자에게 빠져 벗고 다닌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근원설화들 간의 핵심적 구조를 살피고 세부적인 차이를 비교하여 A형, B형, C형으로 나누었다. A형은 <박신일화>, <경포호순상인신록>, <금아이영증속록>으로 단순한 기롱관장(妓弄官長) 애정담과 풍류담이고, 내용은 양반적이며 이를 풍자하는 해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B형은 <질욕>, <풍류진중일어사>로 A형과 달리 기롱관장의 남성취절 풍자담이지만, 양반적인 모습과 합리적, 해학적인 특징 그리고 문헌설화라는 점은 A형과 같다. C형은 <흑기위귀>, <강릉지역전설>로 B형과 비슷하나 새로운 삽화가 첨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흑기위귀>는 기록되어 전하는 것이지만 민담적 성격이 강하고 <강릉지역전설>은 구전되어 전해지는 민담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여자에게 빠져 벗고 다닌 사람>은 C형으로부터 파생된 이야기로 파악한다.²⁰⁾

<강릉매화타령>의 전승에 영향을 준 근원설화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흥모가 '강릉매화타령형 이야기'라고 묶어서 논할²¹⁾ 정도로 근원설화들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그 중 공통적으로 근원설화로 거론되는 것은 <흑기위귀>, <강릉흥장설화>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 제시되는 여러 근원설화들이 있는데 이는 앞에 제시한 두 개의 근원설화에서 영향을 받아 파생되어 나왔거나 혹은 간단한 이야기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교 텍스트로 선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근원설화에서 판소리 <강릉매화타령>으로 전환되는 과

18) 김헌선, 「<무속이타령>과 <강릉매화타령> 형성 소고」, 『경기교육논총』 3, 경기대 교육대학원, 1993.

19) 인권환 논문에서는 <강릉지역전설>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하 강릉흥장설화로 통일한다.

20) 인권환, 「失傳 판소리 사설 연구 : <강릉매화타령>, <무속이타령>, <옹고집타령>을 중심으로」, 『동양학』 2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6.

21) 정흥모, 「강릉매화타령형 이야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정에서 근원설화들 간의 핵심적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 설화를 전부 살펴보지 않고 공통적으로 언급된 근원설화 <흑기위귀>, <강릉홍장설화>를 살펴는 것으로 비교를 진행하고자 한다. 단 <박신일화>는 <강릉매화타령>의 최초 근원설화로 언급되는 것으로, <매화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관리와 기생 사이의 애정을 이야기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속인 다음 돌려주는 두 가지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박신일화>는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매화가>의 조형에 해당한다²²⁾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할 근원설화로 선택하고자 한다. 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사에서 논의되어 온 여러 근원설화들 중에서 <흑기위귀>, <강릉홍장설화>를 비교할 근원설화로 선정하고 여기에 <박신일화>를 더해 총 3개의 근원설화를 비교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3개의 근원설화를 세 가지 측면 인물, 모티프, 주제지향점에서 변별적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각각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박신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혜숙공(惠肅公) 박신(朴信)은 젊어서부터 명망이 있었는데,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강릉(江陵)의 기생 홍장(紅粧)을 사랑하여 정이 매우 깊었다. 임기가 차서 장차 돌아오려 할 적에 부윤(府尹)인 석간(石澗) 조운흥(趙云僉)이 거짓으로 말하기를 “홍장이 이미 죽어서 신선(神仙)이 되어 떠나갔다.”고 하니, 박공(朴公)은 슬퍼하고 그리워하여 자못 즐겁지 못하였다.

강릉부(江陵府)에는 경포대(鏡浦臺)가 있었는데 경관(景觀)이 아름다워 관동(關東)지방의 으뜸이었다. 부윤은 관찰사를 맞이하여 경포대로 나와 놀면서 은밀히 홍장으로 하여금 곱게 단장하고 화려하게 옷을 입게 하였다. 그리고는 별도로 단정한 배를 장만한 다음 수염과 눈썹이 하얗고 풍채가 거룩하여 모습이 처용과 비슷한 늙은 관원 한 명을 뽑아 의관(衣冠)을 입혀 홍장과 함께 배에 태우고 가게 하였다. 그리고 또 채색비단 위에

신라(新羅) 태평성대에 늙은 안상(安詳)
 천년토록 그 풍류 아직도 잊지 못하네.

新羅聖代老安詳
 千載風流尙未忘

22) 인권환, 「失傳 판소리 사설 연구 : <강릉매화타령>, <무속이타령>, <옹고집타령>을 중심으로」, 『동양학』 2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6, 6면.

| | |
|---------------------------|---------|
| 사또가 경포대에 놀러왔단 말 들었으나 | 聞說使華遊鏡浦 |
| 목란(木蘭)배에 차마 흥장을 태우지 못하였네. | 蘭舟不忍載紅粧 |

라는 시를 써서 높이 내걸었다. 그리고는 서서히 노를 저어 포구(浦口)로 들어가서 모래섬 사이를 배회(徘徊)하니, 배 안에서 울려퍼지는 관현악(管絃樂) 소리가 맑고 고와서 마치 천상(天上)에 있는 듯하였다.

부윤은 관찰사에게 말하기를 “이 곳에는 옛신선의 유적(遺跡)이 있어서 산마루에는 차를 끓이던 부엌이 있으며, 여기에서 수십 리 떨어진 곳에는 한송정(寒松亭)이 있는바, 이 정자에는 또 사선비(四仙碑)가 있습니다. 지금도 신선의 무리들이 이 사이에 왕래하여 꽃피는 아침과 달 밝은 저녁에는 사람들이 흑보기도 하는데 단지 멀리서 바라볼 수만 있고 가까이 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였다.

박공은 말하기를 “산천(山川)이 이와 같이 아름답고 풍경이 매우 뛰어나지만 나는 이것을 즐길 만한 정황(情況)이 없다.” 하고는 눈물이 눈에 가득히 고였다. 얼마 후 배가 순풍(順風)을 타고 삼시간에 앞으로 나아오니, 노인이 배를 대고 서로 읊(揖)하였는데 모습이 기괴하였으며 배안에는 아리따운 기생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자태가 몹시 곱고 아름다웠다.

박공은 놀라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신선 세계의 사람일 것이다.” 하고 자세히 보니, 기생은 바로 흥장이었다. 온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고는 매우 즐거워하고 연회를 마쳤다. 그후 박공은 관동(關東)에 시를 부치기를

| | |
|--|---------|
| 소년시절 부절(符節)을 잡고 관동지방 살폈으니 | 少年持節按關東 |
| 경포대(鏡浦臺) ²³⁾ 의 맑은 물 꿈속에 들어오네. | 鏡浦淸遊入夢中 |
| 경포대 아래에 목란배 또 띄우고 싶으나 | 臺下蘭舟思又泛 |
| 예쁜 아가씨 노쇠한 늙은이 비웃을까 혐의하네. | 却嫌紅粉笑衰翁 |

23) 朴惠肅信. 少有時譽. 按江原. 愛江陵妓紅粧. 情頗珍重. 秩滿將還. 府尹趙石礪云佗佗云. 粧已仙去. 朴悼念思想. 頗不自聊. 府有鏡浦臺. 形勝爲關東第一. 尹邀廉使出遊. 密令紅粧靚飾艷服. 別具畫船. 選一老官人鬚眉皓白. 衣冠褻偉. 狀類處容者. 載紅粧. 又揭彩額. 題詩其上曰. 新羅聖代老安詳. 千載風流尙未忘. 聞說使華遊鏡浦. 蘭舟不忍載紅粧. 徐徐擊楫入浦口. 徘徊洲渚間. 絲管淸圓. 如在空中. 尹語廉使曰. 此地有古仙遺跡. 山頂有茶竈. 距此數十里有寒松亭. 亭亦有四仙碑. 至今仙曹神侶往來其間. 花朝月夕. 人或見之. 但可望. 不可近也. 朴曰. 山川如此. 風景殊異. 適無情況. 涕淚盈睫. 俄而舟行順風. 一瞥直前. 老人艤船相揖. 形貌詭奇. 船中紅妓. 歌舞綽約蹁躚. 朴駭愕曰. 必神仙中人. 熟視乃紅粧也. 一座抵掌大笑. 極權而罷. 後朴寄關東詩曰. 少年持節按關東. 鏡浦淸遊入夢中. 臺下蘭舟思又泛. 却嫌紅粉笑衰翁. 성백효 역주, 『四佳名著選 - 東人詩話, 筆苑雜記, 滑稽傳』, 이희문화사, 2001, 204-206면 인용.

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강릉홍장설화>의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江陵府使가, 서울 친구한테서, 아무리 勸하여도 그 아들이 喪妻後 再婚을 듣지 아니하여, 할 수 없이 아들을 江陵으로 보내니, 그 굳은 마음을 풀어 달라는 사연의 편지의 받고, 部下에게 若何若何하라고 滿船 指揮를 하였다.

그 서울 양반이 江陵에 當到하여, 府使의 조용한 別堂에 혼자 거처하고, 無聊히 날을 보내던 中, 하로는 시냇물가에서 빨래하는 고은 女子를 보고 新奇하게 역이고 下人보고 그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下人이 妓生을 제 누이라고 속이고 지금은 과부로 혼자 살고 글을 모른다고 對答하였기에, 그 兩班은自己也 마춤 심심하니 글이나 깨쳐 주마하고 講을들어 주었다. 그 後 每日 그 아름다운 女子와 接하여 차차 惑하여져 가던 차에, 하루는 글 배우러 오던 그 女子는 안 오고, 下人이 와서 自己 누이의 장사를 지내러 下直하러 왔다 하며 총망히 가버렸다.

글 先生은 정든 美人을 잃고 슬픈 날을 보내는 中, 하로는 밤中에 방문이 가만히 열리며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그 女子의 활짝 벗은 嬌態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른 自己 옆으로 끌어 앉히려 하였더니, 그 形相이 幽明之界가 다르니 自己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말린 後 이어서 「영감이 정 小妾을 귀엽게 생각하시면 小妾이 있는 저승으로 오시라」라고 일르고 사라져 버렸다.

그 後, 그 妓生은, 自己에 惑하여 저승으로 딸아 오려다가 氣絶한 서울 양반이 깨어나는 것을 보고, 그를 반가이 맞으며 인제는 영감이 죽었다고 속이고, 저승 사람은 세상 사람 눈엔 안보인다고 하고, 옷을 활짝 베끼고 나서 江陵 장터 구경이나 가자 하고 끌고 갔다. 양반은 저승에 온줄 半信半疑 하였으나, 이것도 집어 먹고 저것도 집어 먹어 보아도 장 사람들이 못 본척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탄 세상에 온 줄로 알았다. 하루는 妓生의 勸誘에 따라 그 所謂 저승의 별거벗은 男子는 府使 生진 잔치자리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도 덤석 저 세상에서도 덤석 이렇게 음식을 집어먹어도, 座中이 亦是 모두 모르는 척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는데, 마춤내 원의 상의 음식을 집으랴고 손을 내밀었더니 원이 안보인 줄 알았던 자기 손을 뜻 밖에 꼭 붓잡고, 分明히 자기 보고 하는 말이 이러하였다. 「인제도 네 마음이 굳다할테나?」²⁴⁾

24) 이해구, 「송만재의 관우희」, 『한국음악연구』, 국민음악연구회, 1957.

마지막으로 <혹기위귀>의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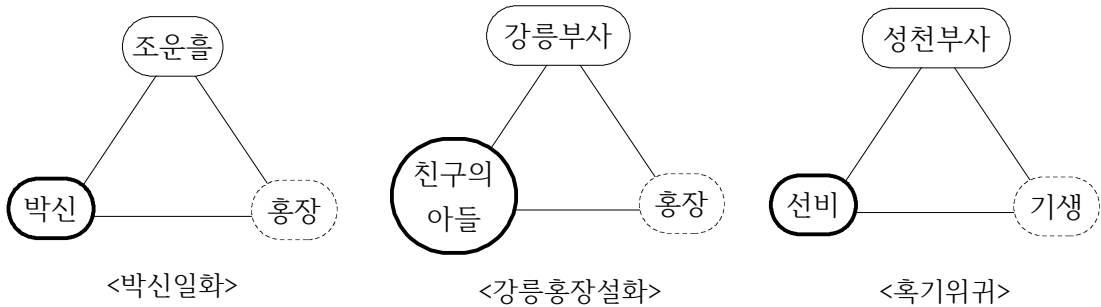
옛적에 두 선비가 있어 정분이 형제와 같아서 매양 만나면 문득 마음 가운데 있는 일로 서로 의논할 때, 한 선비가 「내 평생에 배운 것은 여색(女色)이로다.」 「인생 백세에 임금을 섬기는 나머지 날에 부모를 효성스리 섬기고 그 밖의 밤 사이에 소견하는 즐거움은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없거늘, 그대의 말이 반드시 거짓이로다.」 하고 벗이 말하니 선비가 맹세하여 가로되 「근래에 여색에 침혹하는 자는 족히 사귀어 놀 수 없는지라. 내가 만약 여색에 혹한즉 그대가 비록 절교한다 하여도 내가 원망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라.」 그 후에 벗이 등과(登科)하여 벼슬이 성천부사(成川府使)가 되었던니, 이에 선비를 청해 가로되 「그대가 성천에 와서 조석으로 얘기나 하는 것이 어떠하오.」 「그대의 말대로 하리라.」 하여 부사가 먼저 가고 얼마 후에 선비가 내려와서 피차 인사가 끝난 후 부사가 그의 온 것을 고마워하여 명일에 잔치를 강선루(降仙樓)에 베풀니, 기악(伎樂)이 구름처럼 모여 각각 가곡을 주악하는지라, 선비가 기생이 옆에 오면 문득 냉안으로써 보거늘, 여러 기생이 악연하여 그가 혹시 고자가 아닌가 의심하더니, 부사가 잔치를 파한 후에 여러 기생을 불러 「너희들 가운데 각각 능히 삼국지 모양의 연환묘계(連環妙計)를 써서, 선비로 하여금 미쳐 혹하게 한다면, 마땅히 천 금을 상 주리라.」 하니 한 기생이 가로되 「소인이 원컨대 이 소임을 받으리이다.」 한즉 부사가 승낙했는데, 하루는 선비가 사관(私館)을 나와 한가로이 앉아 우연히 다락 위에 올라 배회하면서 시를 읊더니, 문득 다락 아래 시냇가를 본즉, 한 나이 젊은 아름다운 여인이 옥 같은 얼굴에 붉은 입술로 빨래를 하여 방망이질을 하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녀를 잃게 하는지라, 선비가 한번 보매 심혼이 표탕하여 저도 모르게 다락을 내려와서 여인의 앞으로 걸어갔겠다. 미인이 이에 의상을 수습하여 돌아가기에 선비가 뒤를 따라 한 곳에 이르른즉,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은 가운데 대로 만든 울바자가 반쯤 달렸었다. 미인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지라, 선비가 불문곡직하고 곧 그 집에 들어가니, 미인이 거짓 놀라고 황급하는 기색을 보이며, 낮은 소리로 꾸짖어 가로되 「군자가 어떤 분이시운데 과부의 집으로 뛰어 드시나이까!」 「내가 미인을 보매 거의 혼을 잃을 변한지라, 남자가 만약 거절한다면 내 반드시 죽음을 각오하리니, 원컨대 한 목숨을 구해 주기 바라노라.」 「첩이 삼 년이나 과부로 사는데 군자가 예의없이 강제로 겁탈하려 하니, 첩이 비록 면하고자 하나 어찌 가히 그럴 수 있으랴. 만약 사랑한다 해도 한 때의 즐거움 뿐이요, 백년의 악속을 원치 아니한즉, 비록 일만 개의 칼을 이마

위에 더한다 하여도, 오직 한 번 죽기를 원하나이다。」하고 탄식하며 말하니, 선비가 하늘을 가리키며 맹세하기를 「내가 만약 너를 버린다면 다른 날에 마땅히 벼락을 맞아 죽으리니 내가 근심할 것은 없도다.」하고 이에 호연(好緣)을 맺으니, 이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루는 문득 가동(家僮)이 나타나 편지를 가져왔는데, 글 가운데 친환(親患)의 긴급함을 말하고 급속히 상경하라 하여, 선비가 크게 놀라 미인으로 더불어 이별의 슬픔을 참으면서 가로되 「내가 서울 간 후 두달을 지나지 아니하여 마땅히 내려올 터인즉, 청컨댄 그 꽃같은 얼굴을 손상치 말라.」 천번 만번 약속하고 총망히 집으로 돌아가니, 종로에서 또한 가동이 편지를 가져왔는데 그 글 가운데에 『친환의 병이란 것이 대개 한때의 병에 지나지 않더니, 이제 병이 쾌차하니 반드시 상경할 것 없다.』 하였으므로, 선비가 크게 기꺼워 길을 돌려내려오다가 길가에 새 무덤이 있음을 보았다. 되돌아와서 부사를 본 후에 바로 미인을 찾았더니, 그 집 사람이 말하되 「군자와 이별한 후로 포악한 무리가 불시에 쳐와서 목매어 죽음에 그한 모퉁이에 장사지내었습니다.」 하며 가만히 눈물을 흘리는지라. 선비가 생각한즉 아까의 새 무덤을 보고 실색하고 통곡하여 돌아가, 사처에 누운즉 미인의 귀와 눈이 눈앞에 아리삼삼하여 전전히 잠못 이루더니, 삼경이 지난 때에 문득 창 밖에 인적이 있어 창을 밀고 바라보니, 미인이 다시 오는데 가까이 하고자 하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늘, 선비가 몸을 뒤쳐 밖으로 나와 그의 가느다란 허리를 끌어안고 「꿈이나 생시냐.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하는 구나.」 하여 방성대곡한데, 미인이 또한 울면서 내가 이미 죽은지라, 그대의 후한 덕을 감사히 생각함이요, 또한 아직도 숙연(宿緣)이 다하지 않아 특별히 왔으나, 내가 이미 죽었으매 음혼(陰魂)이 양기(陽氣)를 당하기 어려우니, 가히 그대와 더불어 서로 즐길 수 없다.」 하고 말을 마치자 몸을 배어 가고자 하거늘, 선비가 「내가 만약 죽으면 음혼(陰魂)이 서로 함께 놀리니 어찌 한번 죽음을 아끼리오.」 하더니, 칼을 빼어 자문(自刎)할세 슬프기를 금하기 어려운지라, 기생집의 사람이 가만히 한 개의 시체를 감추어 선비의 눈앞에 던지거늘, 미인이 선비를 가리켜 가로되 「그대가 이미 죽으매 육신이 땅에 떨어지고 영혼이 서로 대하니 이로부터 길이 즐기리라.」 「내가 이미 죽었느냐?」 하고 선비가 놀라 말하니 「그대가 이 시체를 보지 못하느냐?」 선비가 그렇게 믿어서 아침엔 여이고 저녁엔 만났었다. 부사가 또한 가만히 읍내에 전령하고 「아무 기생이 선비로 더불어 이르는 곳마다 다 못 음귀(陰鬼)로써 상대할 뿐이요, 진형(眞形)을 나타내지 않은 것같이 하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엄령을 누가 등지고 발설하랴. 미인이 선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모처(某處)에 감에 어떠한 일을 막론하고 임의대로 취한다 해도 사람들이 일부러 모르는 척 꾸밈으므로, 더욱 기단함이 없었다. 하루는 부사가 동헌(東軒)에서 잔치를 베풀새 미인이 가로되

「오늘은 아중(衙中)이 대연이니 반드시 장관이리라. 우리 두 사람이 벌거벗고 들어감이 어떠하오.» 선비가 그의 요태에 혹하여 한 번 그 말대로, 드디어 의복을 벗고 나체로 양연히 들어가니, 관속들이 비록 문에 있었으나 또한 모르는 척 한고로, 곧 잔치에 들어가서 만좌 가운데에 동분서주하니, 마침 두 기생이 대무(對舞)를 춤에 미인이 선비를 이끌어 가로되 「우리들도 또한 대무(對舞)함이 어떠합니까.» 하고 인하여 석상에서 춤추니, 부사가 부채로써 선비의 등을 두드리며 가로되 「백주 연상에 나체로 맘대로 뛰노는 것이 어찌 양반의 소행이리오.» 한즉 이에 만좌가 박장대소하며 청상청하인가 크게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선비가 부끄러워 가로되 「이는 산화(山禍)이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허물하리오.» 부사가 좋은 말로 위로해 가로되 「그대의 큰 말이 하루 아침에 그림의 떡이 되었으니 가히 듣지 않을 수 없도다」 <奇聞>²⁵⁾

25) 昔, 二士人, 情若兄弟, 每逢, 輒以心中事, 相論, 一士人曰吾平生所憎者, 女色, 友曰人生百歲, 事君餘日, 孝奉父母, 其外夜間消遣之樂, 無過, 於此, 君言, 必詐也, 士人, 盟誓曰近來女色沈惑者, 不足交遊, 吾若感女色則君雖絕交, 我無怨矣, 友曰諾, 其後友人, 登科, 官至, 成川府使, 乃請士人曰君, 柱屈成川而朝夕談話, 何如, 士人曰謹如奉教矣, 府使, 先去未幾, 士人, 下來, 彼此寒暄畢後, 府使, 謝其信業, 明日, 設宴于降仙樓, 妓樂, 雲屯, 各奏歌曲, 士人, 至於妓女, 輒以冷眼視, 諸妓愕然疑其筐者, 府使, 罷宴, 招諸妓謂曰汝等中, 若有能用, 連環妙計, 使士人狂惑則賞賜千金, 一妓曰小人, 願當此任矣, 府使許之, 一日, 士人, 出私館閑坐無聊故, 偶臨樓上, 徘徊吟詩, 忽見樓下川邊則年少美人, 玉顏朱脣, 澣衣催粧, 令人失魂, 士人, 一見心魂, 飄蕩, 不覺下樓當前, 美人, 乃收拾衣裳而歸, 士人, 隨後而到一處則柳綠花紅中, 竹扉半掩而美人, 入去, 士人, 不問曲直, 卽入其家, 美人, 假作驚惶之狀, 低聲嗚曰君是何人, 闖入寡婦家耶, 士人曰吾見美人, 幾爲失魂, 娘今若拒則吾死必矣, 願救一命, 美人, 歎曰吾孀居三年, 君, 非禮強却, 妾雖欲免, 其可得乎, 若戀一時之樂, 不願百年之約則雖萬劍加頸, 惟願一死, 士人, 指天盟誓曰吾若棄汝, 他日當雷火所滅矣, 你勿多慮, 仍結好緣, 自此以後, 恩情, 如膠, 晝夜不離, 一日, 忽有家僮, 持家書, 書中則備言親患之緊急, 急速上京, 士人, 大驚而與美人, 忍別曰吾於到京後不過數月, 當率去矣, 幸勿損花顏, 千萬叮約而忽忙歸還, 中路, 又有家僮, 持書而來, 書中, 大概言親患, 不過一時之病, 今則決差, 不必上京云, 士人, 大喜, 還爲下來, 見路傍, 有新塚, 過眼, 入見府使後, 卽地, 來訪美人, 其家人, 言, 自君離別後, 強暴之徒, 不時來鬧, 結項致死, 葬於其隅云, 潛然淚下, 士人, 思之則俄見新塚處, 不賞失色, 病哭而歸臥私處則美人耳目, 森列於前, 轉輒不寐, 三更之時, 窗外有人跡, 推窓(靉窓)人, 再再而來, 欲近非近, 士人, 踴身出外, 抱其細腰(靉窓)眞耶, 令人欲死, 放聲大哭, 美人, 亦泣曰吾已死矣, 感君厚德, 又況宿緣, 未盡故, 來, 然, 吾已死, 陰魂, 難當陽氣, 不可與君, 相歡, 言罷, 袖身欲去, 士人曰, 吾若死則陰魂, 相遊, 何昔一死乎, 遂引刀自刎, 痛迫難禁, 妓家人, 暗藏一屍人而拋仆於士人之目前, 美人, 指士人曰君, 已死, 肉身, 仆地, 靈魂相對, 從此永樂, 士人, 驚曰君已死耶, 美人曰君不具這屍身乎, 士人, 信以爲然, 朝離暮合, 府使, 亦暗傳露令於色內, 如若某妓, 與士人, 到處, 但以陰鬼, 相待, 勿眞形, 如此嚴令, 誰肯發說乎, 美人, 與士人, 并肩而行到某處, 毋論何事, 任意取之, 人皆佯若不知之狀故, 尤無忌憚, 一日, 府使, 設宴於東軒, 美人曰今日, 衙中, 大宴, 必是壯觀, 我兩人, 裸體而入, 如何, 士人, 惑於妖態, 一從其言, 遂脫衣服, 裸體, 昂然而入, 官屬, 雖當門, 亦爲不知故, 直入宴中而東奔西走於滿座之中, 適其兩妓, 對舞, 美人引士人, 曰我等, 亦爲對舞, 如何, 因舞於席上, 府使, 以扇, 打士人之背曰白晝宴上, 裸體姿遊, 此豈兩班之所爲哉, 此是, 滿席, 拍掌大笑, 廳上廳下, 無大笑, 士人, 慙愧無地曰此, 山禍也, 誰怨誰咎, 府使, 好言慰撫曰君, 平生大言, 一朝, 成畫餅矣, 堪可笑云, 「기문(奇聞)」,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영암 역, 『古今笑叢』, 서울:신양사, 1967, 261-266면에서 재인용.

3개의 근원설화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인물이다. 3개의 근원설화에서는 크게 속임을 계획하는 자(A), 속임을 당하는 자(B), 속임의 계획을 실행하는 자(C)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인물의 위치를 살펴보면 속임을 계획하는 자에 해당하는 A는 전부 관리이다. <박신일화>에서는 부윤 조운흘, <강릉홍장설화>에서는 강릉부사, <혹기위귀>에서는 성천부사로 모두 관직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속임의 계획을 실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C는 3개의 근원설화에서 모두 기생으로 그려진다. 즉 <박신일화>, <강릉홍장설화>, <혹기위귀>에서 속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인 A와 C는 모두 관리와 기생이라는 직위가 유지되고 있다.



○ : 속임을 계획하는 자 / ● : 속임을 당하는 자 / ○ (dashed) : 속임의 계획을 실행하는 자

하지만 속임을 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B는 조금 다르다. <박신일화>에서는 안렴사 박신, <강릉홍장설화>에서는 친구의 아들, <혹기위귀>에서는 성천부사의 오랜 친구(선비)로 속임을 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B는 각각의 근원설화 속에서 전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다. B는 A나 C와 달리 유일하게 유동적인 인물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A와 B의 신분이나 직위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박신일화>에서 A와 B를 살펴보면 A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윤 조운흘이고, B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렴사 박신이다. 각자의 직위를 살펴볼 때 조운흘의 직위는 강릉 부윤으로 지금의 강릉시장에 해당하고 박신의 관직인 안렴사는 관찰사와 동격으로 현재의

도지사에게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속임을 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박신이 조운
 흥보다 직위가 더 높다. 하지만 <강릉홍장설화>에서는 강릉부사가 친구의 부탁으
 로 상처한 후 재혼하지 않겠다는 친구의 아들을 속인다. A와 B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친구에 해당하는 A가 B보다 위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된다. 또 <혹기위
 귀>에서는 색을 멀리하는 친구를 속이는 것으로 A와 B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구관
 계이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세 편의 근원설화에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박신일화>에서는 B가 A보다 직위가 높은 반면에 <혹기위귀>와
 <강릉홍장설화>에서는 A가 B보다 신분이나 직위가 더 높거나 동등한 존재로 나타
 난다. 이러한 부분은 이어서 살펴볼 모티프나 주제지향점의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친
 다.

다음으로는 살펴볼 측면은 모티프이다. 3개의 근원설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티프는 A와 C에 의해 B가 속임을 당하는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박신일화>에서는 조운흥과 홍장에 의해 박신이, <강릉홍장설화>에서는 강릉부사
 와 홍장에 의해 친구의 아들이, <혹기위귀>에서는 성천부사와 기생에 의해 선비가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나타난다. 또한 속임의 과정 중 하나로 C의 가짜죽음이 등장
 하고 그것을 진짜로 믿고 슬퍼하는 B의 모습이 그려지며, C는 가짜 귀신으로 B의
 앞에 등장한다.

3개의 근원설화는 ‘속임의 구조’라는 큰 틀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하
 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A-B 사이의 신분이나 직위의 차이는 바로 ‘속임’이라는 모
 티프의 본질에 차이를 준다. <혹기위귀>와 <강릉홍장설화>에서는 A와 B를 비교했
 을 때 A가 B보다 신분이나 직위가 더 높거나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B를 속이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A와 B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A가 B보다 신분이나 직위가 높거나 동등한 경우에는 누군가를 놀려 속이
 는 것이 가능하다. <혹기위귀>와 <강릉홍장설화>는 <박신일화>와 달리 A가 B보다
 직위가 높거나 동등했기 때문에 B는 A의 계획 아래 속임을 당할 수 있었다. 또한
 A의 명령에 의해 C에게 속아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B의 모습인 ‘알몸 모티프’
 도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A보다 B의 직위가 높은 경우라면 자신보다 높은 신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을 놀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박신일화>는 속임의 구조이기는 하
 지만 A가 B보다 신분이나 직위가 더 낮기 때문에 <혹기위귀>나 <강릉홍장설화>처
 럼 B를 속여 골탕 먹이는 것으로 함께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박신일화>는 B
 를 속여서 골탕 먹이는 것보다는 안렴사로 왔던 박신에게 조운흥이 마지막으로 강

원도를 떠나기 전에 대접을 근사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누군가를 골탕 먹여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보다는 다 같이 즐겁게 노는 놀이, 대접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B가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부분은 B를 망신시키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중요한 장면이지만 <박신일화>에는 이 장면이 나타나지 못했다.

한편 <혹기위귀>와 <강릉홍장설화>는 B가 스스로 색을 멀리한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색을 거절하고 멀리하는 B의 등장은 이야기에 색을 개입시킬 명분을 제공해 주고 A로 하여금 B를 속일 근거를 마련하게 해준다.²⁶⁾ 때문에 <혹기위귀>와 <강릉홍장설화>의 주제지향점은 색을 거부하는 B를 속여 놀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두 근원설화 사이에도 속임의 본질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강릉홍장설화>에서는 B에 해당하는 인물이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놀려서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혹기위귀>만큼 강한 것이 아니다. <혹기위귀>는 A가 색을 거부하는 B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B를 속여 놀리고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하지만 <강릉홍장설화>에서는 B를 놀려서 골탕 먹이는 것보다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아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오히려 골탕보다는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는 친구의 아들과 친구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배경을 보면 <박신일화>와 <강릉홍장설화>의 배경은 강원도로 그려지지만 <혹기위귀>는 평안도로 그리지며, 또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A의 물음이나 행동을 통해 B는 속았다는 것을 깨닫지만 <박신일화>에서는 A의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고, B에 해당하는 박신은 스스로 홍장임을 깨닫고 그 모습에 주위 사람들이 웃는다. 그 후 다 같이 연회를 즐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는 부분도 차이가 드러난다.

한편 세 개의 근원설화의 선후 관계를 살펴보면 순서대로 <박신일화>, <강릉홍장설화>, <혹기위귀>로 보여진다. <박신일화>가 수록되어있는 『동인시화(東人詩話)』는 작자가 서거정(徐居正, 1420-1488)으로 1474년에 지은 시화집이다. <강릉홍장설화>는 구비전승된 이야기로 작자는 물론이고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²⁷⁾ <박신일화>가 전성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민간에서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로 작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19세기 전후로 추측된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세

26) 김현선, 「<강릉매화타령> 발견의 의의」, 『국어국문학』 109, 국어국문학회, 1993.

27)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살펴보면 고려 말에서 조선 초 때의 명기 홍장(紅粧)에 관한 설화라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구비전승 되던 것이 정확히 문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개의 근원설화의 선후 관계를 <박신일화>, <강릉홍장설화>, <혹기위귀> 순으로 두고 진행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인물, 모티프, 주제지향점을 중심으로 3개 근원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박신일화> | <강릉홍장설화> | <혹기위귀(惑妓爲鬼)> |
|-------------|--|--|--|
| 공 통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임의 구조 - 속임을 계획하는 자, 속임을 당하는 자, 속임의 계획을 실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세 인물 등장 - 속임을 계획하는 자, 속임의 계획을 실행하는 자가 관리와 기생으로 그려짐 - 기생의 가짜죽음 - 기생이 (가짜)귀신으로 나타남 - 기생의 가짜죽음에 슬퍼함 - 부사와 기생의 모의(유혹) - 유혹에 성공 | | |
| 차 이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임의 대상 : 안렴사 박신 - 작품배경 : 강릉 경포대 - 속이는 목표 : 대접 - 속이게 된 계기 :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관리에 대한 마지막 잔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임의 대상 : 친구의 아들 - 작품배경 : 강릉 장터 - 속이는 목표 : 놀림 - 속이게 된 계기 : 친구의 부탁을 받고 놀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임의 대상 : 선비 - 작품배경 : 평안도 성천 - 속이는 목표 : 놀려서 골탕 먹이는 것 - 속이게 된 계기 : 선비의 색을 거부하는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김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몸으로 거리 배회 및 부사생일잔치 참석 - 부사의 물음을 듣고 속은 것을 깨달음 - 여인이 알몸으로 등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몸으로 잔치에서 춤을 춤 - 부사의 부채로 맞은 후 속은 것을 깨달음 |
|--|---|--|

지금까지 <강릉매화타령>의 근원설화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작품 3개를 비교 검토하여 살펴보았다.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판소리 <강릉매화타령>의 사설정착본과의 비교해 세 가지 측면의 변별적 차이를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파악해 볼 것이다.

2. <강릉매화타령>의 사설정착본

지금까지 발견된 <강릉매화타령>의 사설정착본으로는 <매화가>와 <골생원전>이 있다.²⁸⁾ 현재로서는 이 두 사설정착본이 판소리 <강릉매화타령>의 원래 모습에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근원설화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근원설화와 비교하기에 앞서 두 사설정착본 상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인물, 모티프, 주제지향점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두 작품의 비교를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사단락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매화가>의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28) <매화가>의 원문과 번역은 김기형 역주, 『적벽가·강릉매화타령·배비장전·무속이타령·옹고집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103-148면을, <골생원전>은 김진영(외) 편저, 『실창 판소리사설집』, 서울:박이정, 2004, 225-245면을 따랐다.

<매화가>

- ① 강릉 사또가 도임 시에 키도 작고 얼굴은 못생겼으나 문필이 뛰어난 책방 골생원을 데리고 간다.
- ② 사또는 골생원에게 강릉 명기 매화를 소개해주었고 골생원은 매화와 사랑에 빠진다.
- ③ 매화와 매일같이 노닐며 사랑을 하던 중에 골생원은 과거를 보라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는다.
- ④ 어쩔 수 없이 매화와 이별 한 후 집으로 오는 길 내내 달낭쇠에게 매화이야기를 하며 매화를 그리워한다.
- ⑤ 집에 와서도 골생원은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매화 생각만하며 시간을 보낸다.
- ⑥ 과거를 보러 과거장에 가서도 매화 생각뿐이었고 매화에 관해 쓴 글을 제출해 시관에게 욕을 먹는다. 과거를 망친 후 매화에게 줄 정표를 사기 위해 시장으로 향한다.
- ⑦ 시장에서 시전아이는 골생원을 따라다니며 물건을 추천해주지만 사지 않자 골생원의 뺨을 때린다.
- ⑧ 뺨을 맞고 부끄러워 도망가는 중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한 골생원은 시장으로 돌아가서 매화에게 줄 바늘침을 구매한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달낭쇠를 깨워 강릉으로 향한다.
- ⑨ 한편 강릉사또는 골생원을 속이기 위해 매화를 죽은 것으로 하고 골생원이 오는 길에 가짜 무덤을 만들고 목비를 세워두게 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입단속시킨다.
- ⑩ 골생원은 강릉으로 오던 중 만난 초동목수 아이들 중 한명에게 매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 말을 믿지 못한 골생원은 직접 확인하러 매화무덤으로 향한다.
- ⑪ 매화의 무덤을 직접 본 골생원은 대성통곡하며 강릉에 도착한다. 매화를 위한 제사를 지내며 울자 방자는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닌데 운다고 비판한다. 환장이를 불러 매화그림을 그리는 등 매화를 그리워한다.
- ⑫ 강릉사또는 매화에게 귀신인 척 골생원에게 나타나라고 명한다. 가짜 귀신으로 나타난 매화는 골생원을 찾아가 시간을 보낸다.
- ⑬ 매화는 자신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 헤어져야한다고 말하자 골생원은 매화를 붙잡는다. 매화는 골생원에게 자신과 같이 가자고 말하며 갈 때는 알몸으로 가야한다고 말한다.
- ⑭ 한편 경포대놀이를 하던 사또는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골생원이 오면 못 본

척 하라고 명한다. 매화를 따라 알몸으로 경포대로 향하는 골생원은 자신의 상여를 보고 죽은 것을 확신하고 그곳에 자기를 위한 제사상이 차려진 것을 보고 음식을 먹는다.

- ⑮ 이때 사또가 담배잔으로 골생원을 지지자 속은 것을 깨닫는다. 주색을 탐하지 말라는 사또의 말로 끝이 난다.

다음으로 <골생원전>의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골생원전>

- ① 강릉부사가 좌정할 때 책방 골생원을 데리고 가는데, 그는 외모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보잘 것 없었지만 문필은 뛰어났다.
- ② 부사는 골생원에게 강릉 명기 매화를 소개해주고 골생원은 매화와 사랑에 빠진다.
- ③ 골생원은 매화와 매일같이 놀며 시간을 보내던 중 본가에서 달낭쇠가 과거를 보러 오라는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온다.
- ④ 어쩔 수 없이 이별하고 오는 길 내내 아이와 달낭쇠에게 매화이야기를 하며 매화를 그리워한다.
- ⑤ 집에 도착해서도 과거공부는커녕 매화를 그리워하기 바빴다.
- ⑥ 과거를 보는 날에도 오직 매화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과거도 망친다. 그렇게 과거장을 나와 매화에게 줄 정표를 사러 시장으로 향한다.
- ⑦ 매화에게 줄 여러 가지 정표를 사고 그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달낭쇠에게 강릉으로 가자고 재촉하여 향한다.
- ⑧ 한편 골생원이 낙방하고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강릉부사는 골생원을 속이기 위해 매화를 거짓으로 죽었다고 꾸미고 가짜 무덤을 만들어 목비와 함께 골생원이 오는 길에 세워두라고 명한다.
- ⑨ 강릉으로 오던 길에 매화무덤을 발견한 골생원은 대성통곡을 하며 강릉으로 돌아와 매화를 위해 제사상을 차린다. 그것을 보고 또 우니 방자는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닌데 운다고 비판한다. 골생원은 화공을 불러 매화그림을 그리게 하는 등 매화를 계속 그리워한다.
- ⑩ 부사는 매화를 불러 부종녀를 데려와 매화라고 말해 골생원을 속이라고 한다.
- ⑪ 매화 대신 들어간 부종녀는 골생원을 희롱하고 나온다. 뒤이어 매화가 들어가 시간을 보낸다. - 이하 낙장 -

지금까지 사설정착본 <매화가>와 <골생원전>를 서사단락으로 간단히 정리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두 사설정착본은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꽤 많은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비교 기준으로 삼았던 인물, 모티프, 주제지향점을 가지고 두 사설정착본 사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인물 측면을 살펴보면 인물에서는 공통적으로 속임을 계획하는 자(A), 속임을 당하는 자(B), 속임을 실행하는 자(C)의 인물구조가 중심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속임을 계획하는 자는 <매화가>에서 강릉사또로, <골생원전>에서는 강릉부사로 언급되고 있지만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 작품 내에서 하는 역할과 성격적 특징은 같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로 봐도 무방하다.

한편 두 사설정착본 사이에서는 중심인물을 제외한 주변인물에서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두 사설정착본에 모두 등장하는 주변인물로는 달랑쇠²⁹⁾, 방자, 환쟁이³⁰⁾, 부종녀³¹⁾가 있다. 달랑쇠 같은 경우

29) <매화가>에서는 달랑금(금)으로, <골생원전>에서는 달랑쇠로 언급되는데 둘 다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 본 논문에서는 달랑쇠로 통일하여 언급한다.

30) <매화가>에서는 환쟁이로, <골생원전>에서는 화공으로 언급되는데 이것도 역시 둘 다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임으로 본 논문에서는 환쟁이로 통일하여 언급한다.

31) <매화가>에서는 <골생원전>에서 나타나는 부종녀의 역할에 해당하는 인물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두 사설정착본을 비교해보았을 때 <골생원전>에서 부종녀가 등장하는 부분이 <매화가>에서 부(府)중예라는 명칭으로 언급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매화가>에서의 부중예가 부종녀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사설정착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이 書房任야. 九天의 도야간 梅花 날을 보소. 骨書房 반거드고 曰각 썬여 내더서이, 미화는 화임 중의 물을 감초오고 付중예만 들어가이, 骨生員 싹씩 놀나야 미화 부야지랴 혼는 놨이 예는 엽다. 부중예 달너드어 骨生員 검저 안고 무슈이 녹낙헛다가 동나에 썩카 우덧 경경 씨고 도야가이, 骨生員 디경헛야 제슈어 열장군이 지긔 바드오 와다가 건너가부다.” 우리 서방님야. 구천에 돌아간 매화 나를 보소. 골서방이 반겨 들고 왈각 뛰어 내달리니, 매화는 화림 중에 몸을 감추고 부중(府中)에만 들어가니, 골생원이 싹씩 놀라 매화 보려 하는 놨이 여기는 없다. 부중에 달려들어 골생원이 검저 안고 무수히 즐기다가 동내에 수개 울듯 경경 짓고 돌아가니, 골생원이 크게 놀라 제슈어 열장군이 지긔 받으러 왔다가 건너갔나 보다. (매화가, 124면)

“부종녀 드러가며 서방임 손녀 드러완니 어이하어 모로논가 한 말로 불너 웨고 초당 후면 화중 속의 슈머 안즈 옛드른이 골싱원 이론 말이 어이 々것 웬 소리야 미화 소리 원연하다 비논이다 々々골싱원 싹씩 놀리어 저 쥬열장군이 날 쥬기랴고 드러와지요 미화 보아지랴 원야씨면 쇠아달이요 서방임 날 보아지랴 쥬야탄식하옵기로 서천서역국의셔 삼일 슈유 타가지고 낭군 보려 나와신이 오날밤의 망중 보오 부종녀 거동 보소 골싱원을 덤적 안고 막니조직 어루다시 하다가 우지 마라 네 무어시 먹고 시프냐 이디지 보치논야 골싱원 조지을 불근々々

과거를 보러 오라는 아버지의 편지를 골생원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달랑쇠와 함께 집으로 올라가는 길 내내 골생원은 달랑쇠에게 매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달랑쇠와 골생원의 대화부분은 두 사설정착본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달랑쇠가 골생원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대답하고 싶은 말에만 대꾸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는 달랑쇠가 자신이 모시는 사람인 골생원에게 말하는 태도는 주목해 볼 만하다. 윗사람의 말에 문답하는 달랑쇠의 태도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행동이라 볼 수 없고 그 안에는 골생원에 대한 비품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자와 환쟁이, 부종녀 또한 두 사설정착본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다. 방자는 매화의 죽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 계속 매화를 생각하며 대성통곡하며 우는 골생원을 보고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닌데 운다고 비판한다.³²⁾ 방자 또한 골생원보다 아랫사람으로 골생원에게 대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다. 매화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등장하는 환쟁이 역시 골생원보다 아랫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바로 응하지 않고 골생원에게 말대꾸를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종녀가 나타난다. 강릉부사는 숨겨두었던 매화를 불러 부종녀를 매화인 척 속여서 골생원에게 들여보내라 명한다. 골생원은 매화라고 들어오는 부종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며 거리를 두려한다. 부종녀가 골생원을 희롱하고 나와서 진짜 매화가 들어갔을 때도 부종녀인 줄 알고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장면은 골생원은 자신이 알던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매화와 다르니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부종녀는 골생원의 신체를 만지며 희롱하면서 골생원을 희화화시키고 웃음거리로 만든다.

<매화가>와 <골생원전>에서 서술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변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두 골생원보다 아랫사람으로 전부 골생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비품의 태도로 응한다. 달랑쇠, 방자, 환쟁이는 결국 속임을 당하는 사람인 골생원을 직접적으로 속여서

주무르며 키는 소하야도 그 높은 증조쇠고 만첩청산 늘근 범이 살핀 기을 노코 어로운 닷 한참을 어로운 닷 한참을 어로난이 골생원 그가 막케 숨을 스식기 숨쉬 덧 주갈치에 족긴 썩의 식기쳐로 이블을 쓰고 나부시 업제썩이 부종녀 온이 낭군 보러 나와썩던이 낭군이 정제 업셔 날 마다고 과급한이 소녀는 나가난이다 문을 열고 나간 연후의 골생원이 이려 안자 정신 차라 이른 말이 스블범정이어든 저는 귀신이요 나는 사름이어든 언감싱신으로 접죽할고 급스여” (골생원전, 243면)

32) <매화가>에서는 “여보시오. 父母 주근디 ‘아고, 아고’ 흐지, 접 주근디 ‘아고, 아고’ 흐오.” (매화가, 122면), <골생원전>에서는 “방자 옛자오디 위친상사의 이고스스 우제 첩의 상사의 이고스스 우난잇가” (골생원전, 240면)로 나타난다.

골탕 먹이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골생원 지켜보면서 비판과 풍자의 대상으로 골생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각각의 사설정착본에만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다. 먼저 <매화가>에서는 시전아이와 초동목수 아이가 등장한다. 시전아이는 골생원이 과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매화에게 줄 정표를 사러 시장에 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물이다. 골생원을 따라 다니며 이것저것 권하지만 골생원이 아무것도 사지 않자 화가나 골생원의 뺨을 내려친다. 다른 주변 인물들은 골생원이 묻는 말에 풍자적이고 비판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전아이는 골생원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뺨을 치는 것으로 직접 표출한다. 이 장면은 이제까지 살펴본 주변인물들이 보여줬던 행동들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초동목수 아이들은 골생원이 매화를 보러 강릉으로 가던 길에 마주치는 인물이다. 매화를 볼 생각에 기분이 좋은 골생원은 가던 길에 만난 아이들을 보고 반가워 매화는 잘 있냐고 묻는다. 한 아이가 매화가 상사병에 걸려 죽은 후 길가에 묻었다는 이야기를 한 후 가버리려고 한다. 골생원은 그 아이를 붙잡아 살살 달래면서 가려고 하는 아이를 달래고 얼워서 매화의 무덤이 있는 곳을 물어본다. 이때 아이의 태도를 살펴보면 자신보다 윗사람이자 어른인 골생원이 묻는 말에 대충 대답하고 헛 돌아서서 가버린다.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또는 아이가 어른에게 보이는 태도로 볼 수 없다. 초동목수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도 골생원은 무시당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골생원전>에서는 <매화가>에서 볼 수 없었던 골생원의 부인이 등장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뵙고 방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강릉까지 잘 다녀왔는지 묻는다. 하지만 골생원은 부인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불문부답하며 매화만 그리워한다. 골생원의 부인은 골생원이 과거를 보러 본가로 왔을 당시 아주 잠깐 언급된다. 아주 잠깐이지만 부인의 등장은 골생원의 부정적 면모를 더 잘 보여준다. 부인이 있지만 무시한 상태로 매화에게 빠져 그리워하는 골생원의 모습은 양반 스스로 중요시 여기는 부부간의 예를 깨트리는 것으로 양반이 스스로 지켜야한다고 믿는 규범을 깨는 모습을 통해 당시 향유하는 입장에서 지배층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더 해준다.

두 사설정착본을 인물 측면으로 살펴보았을 때 몇몇의 주변인물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인물들은 속임을 당하는 골생원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인

물들을 살펴보았을 때도 골생원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아가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두 사설정착본에서 나타나는 주변 인물들은 골생원보다 아랫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인물들보다 골생원을 비판적으로 보고 풍자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의 주변 인물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골생원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 이는 판소리의 장르적 특징을 잘 드러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판소리는 민중의 문학으로 그 안에 민중의 의식을 드러내게 된다. 자신과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등장시켜 민중 자신이 말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데 바로 여기서 주변인물들이 해당한다.

다음은 모티프 측면을 살펴보면 <매화가>나 <골생원전> 둘 다 가장 핵심이 되는 모티프는 ‘속임의 구조’이다. 앞서 살펴본 A-B-C의 인물 구조는 바로 속임이라는 모티프로 연결되어 있다. 그 밖에 서사단락으로 줄거리를 정리한 것을 살펴보면 내용면에서는 두 사설정착본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골생원전>은 <매화가>와 달리 전문이 전부 전해지는 사설정착본이 아니다. 중간에 훼손된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결말부분이 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화가>와 완벽한 비교는 어렵다. 특히 <매화가>에서 ‘속임의 구조’ 모티프 다음으로 핵심적인 모티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알몸모티프인데, 결말부분이 전해지지 않는 <골생원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골생원전>에서는 <매화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고 삽입가요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며 장면의 극대화가 두드러진다. 또한 인물의 희화화나 비속화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골생원전>을 <매화가>보다 이후에 나온 이본으로 추측가능하다.³³⁾ 이러한 점을 미루어 생각해보았을 때 전해지지 않는 <골생원전>의 마지막 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매화가>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제지향점이다. <매화가>와 <골생원전>을 서사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세부적으로 차이는 존재했으나 큰 맥락안에서는 둘다 골생원을 비판한다. 또한 인물과 모티프 측면에서 살펴본 차이나 변화들은 속임을 당하는 ‘골생원’이라는 인물에 대해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거나 더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골생원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화가>와 <골생원전>의 주제지향점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설정착본 <매화가>와 <골생원전>을 비교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를

33) 김석배, 「골생원전 연구」, 『고소설연구』 14, 한국고소설학회, 2002.

바탕으로 근원설화와 사설정착본 사이를 비교하여 판소리 <강릉매화타령>으로 전환되어 오면서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겨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논문은 사설정착본들 간의 비교가 목적이 아니라 근원설화에서 판소리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매화가>가 먼저 등장하고 <골생원전>이 후대에 개작되었다는 기존 연구를 수용하고자 한다.³⁴⁾ 덧붙여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골생원전>은 마지막 부분이 낙장으로 온전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2개의 사설정착본 중에 어느 한 개를 비교텍스트로 선정하지 않고 전부 제시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두 사설정착본에 나타나는 것은 함께 제시하되 둘 중 하나에만 제시되어있는 부분은 그것만 제시하여 보여줄 것이다.

3. 근원설화와 사설정착본의 비교

앞서 근원설화와 사설정착본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근원설화와 사설정착본에서 살펴본 특징을 서로 비교하여 판소리 <강릉매화타령>으로 전환되기까지 인물, 모티프, 주제지향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인물 측면을 살펴보면 근원설화에 나타난 속임을 계획하는 자(A), 속임을 당하는 자(B), 속임의 계획을 실행하는 자(C)에 해당하는 3명의 인물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사설정착본에 모두 나타난다.

A나 C에 해당하는 인물은 근원설화에서 사설정착본으로 정착되어오면서 부르는 명칭이나 직위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작품 내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주목해야할 점은 바로 속임을 당하는 자인 B이다. B는 근원설화에서부터 사설정착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온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왜 A와 C는 사설정착본으로 정착되어오면서 변하지 않는데 B만 변화한 걸까? 필자는 중심인물 세 명 가운데 속임을 당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인물만 변화하는 것 부분에 주목하였다.

근원설화 중 가장 먼저 발생했을 것으로 이야기되는 <박신일화>에서 B에 해당하

34) 위의 논문, 135면.

는 인물은 박신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신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도지사의 자격에 해당하는 인물로 강원도에 부임하여 왔다. 때문에 속임을 계획하는 자인 A보다 속임을 당하는 B의 직위가 높다. 그래서 <박신일화>에서 보이는 A와 B의 관계는 A가 B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대접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임기를 마친 후 B가 돌아가기 전에 열어주는 이벤트 가운데 하나로 ‘속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B는 <강릉홍장설화>로 오게 되면 친구의 아들로 바뀐다. <강릉홍장설화>에서 B는 친구의 아들로, 친구에게 상처 후 재혼하지 않겠다던 아들을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A에 의해 속임을 당한다. <강릉홍장설화>에서 B는 <박신일화>와 달리 A보다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A에 의해 B가 속는 것이 가능하며 <박신일화>에서처럼 대접의 방법이 아닌 진짜 속임을 당하는 대상으로써 B가 성립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혹기위귀>로 넘어오면 B는 또 변화한다. 여기서 B는 선비로 A의 친구이며 색을 거부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색을 거부하는 친구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A는 B를 속여서 골탕 먹이려고 한다. 이는 이전의 설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부분으로 A와 C는 B를 골탕 먹이기 위해 속임을 계획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골탕을 당하는 부분은 B의 변화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다. 속임의 이유가 다르지만 세 편의 근원설화에서 모두 속임이 드러난다. 하지만 골탕 먹이는 것은 <박신일화>, <강릉홍장설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박신일화>에서는 윗사람에 대한 대접의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B를 속여서 골탕 먹인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기 어렵다. <강릉홍장설화>에서는 A가 B를 속이는 것이 친구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속이는 대상이 친구의 아들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B를 골탕 먹여서 망신을 주려는 목적에 의해 속인 것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한 것이며, B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속임’이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혹기위귀>는 조금 다르다. 여기서는 단순히 B가 속임을 당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탕을 먹이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골탕 먹인다는 것은 골탕을 당하는 대상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 존재해야하고 골탕을 먹여 당사자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겨져있다. 즉 단순히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B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담겨있는 것이다.

근원설화 속에서 박신, 친구의 아들, 선비(양반)으로 변화해오던 B는 사설정착본

에 이르러 골생원으로 제시된다. 근원설화 속에서 속임의 대상이 되는 B는 사설정착본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이 더해졌다. 사설정착본 속에서 책방으로 제시된 B는 외모에서부터 행동 하나하나 전부 비판적으로 서술된다. 서술의 정도는 근원설화에서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며 풍자적으로 그려진다. B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서술되는 가운데 왜 B에게 책방이라는 직위가 부여된 것일까?

다음으로 모티프측면이다. 근원설화에서 나타난 ‘속임과 골탕의 구조’ 모티프는 그대로 유지되어 사설정착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B가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요소, 즉 알몸모티프 또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근원설화와 사설정착본을 살펴보면 B를 바라보는 시선자체가 조금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근원설화에서는 B에 해당하는 인물이 색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사설정착본에서 그려지는 B에 해당하는 골생원은 완전히 다르다. 근원설화에서는 색을 거부하는 B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설정착본에서 B는 애초에 색을 밝히고 좋아하는 인물로 그려지며 외모에서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전부 부정적인 시선으로 묘사되고 있다. 주변인물들 또한 B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왜 그럼 이렇게 B에 대한 서술이 근원설화에서 사설정착본으로 오면서 훨씬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을까?

마지막으로 주제지향점이다. 인물과 모티프의 측면에서 주목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B에 대한 변화였다. 근원설화 속 B는 색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다가 사설정착본으로 오면서 색을 좋아하는 것에서 색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또한 근원설화에서는 B를 골탕 먹이는 것이긴 하지만 놀리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반해 사설정착본으로 오면서 B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인물, 모티프 측면에서도 ‘골생원’이란 인물을 묘사하는 것에서부터 부정적이고 희화화 시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B의 인물변화는 주제지향점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근원설화의 주제지향점은 속여서 골탕 먹이는 것으로 끝났다면 사설정착본은 근원설화의 주제지향점에서 나아가 색을 탐하지 말라는 것에 이른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들은 판소리 <강릉매화타령>의 주제를 골생원을 색을 탐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야기 해왔다.

하지만 근원설화와 사설정착본의 특징들을 서로 비교해 살펴본 결과 필자는 기존 연구들이 주제를 단순히 색을 탐하지 말라는 것에서 끝을 냈는지 의문이 들었다. 속임을 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B의 변화가 바로 <강릉매화타령>이 판소리화 되

는 과정에서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를 고려해보면 민중 자신들을 괴롭히거나 부정적인 인물을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 때문에(신분, 직위 등) 비판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들을 판소리 속 인물로 등장시켜 비판하고 희화화시킨다. B는 근원설화에서 사설정착본으로 정착되면서 줄곧 속임과 골탕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B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들 이면에는 반드시 당대의 민중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들어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인물과 모티프, 주제지향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나타났던 차이들 중에 근원설화에서 사설정착본까지 정착되어오면서 왜 B가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책방이라는 새로운 직위를 가지게 되었는지, B에 대한 시선이 비판적, 부정적이며 그 정도가 근원설화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강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대체 책방이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길래 B로 나타나게 되었을까? 과연 조선 후기 당시에 책방은 민중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Ⅲ. 책방 골생원에 주목한 <강릉매화타령>의 주제의식

1. 책방 골생원의 형상화 양상

앞서 <강릉매화타령>의 근원설화 3편과 사설정착본 <매화가>, <골생원전>을 비교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작품 내 핵심적인 세 인물 가운데 속임을 당하는 자가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것이 가장 큰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근원설화에서 나타나지 않았거나 일부에서만 드러났던 속임을 당하는 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사설정착본으로 오면서 크게 부각되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사설정착본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인 골생원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골생원의 부정적 모습을 효율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서술자의 시선으로 그려진 골생원의 모습과 등장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본 골생원의 모습으로 층위를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서술자의 시선으로 그려진 골생원의 모습

서술자의 시선으로 그려진 골생원의 모습은 사회적인 것과 가족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골생원의 사회적 모습을 살펴보면 신분은 양반이다. 두 사설정착본 <매화가>와 <골생원전>에 직접적으로 양반이라고 언급되어 있다.³⁵⁾ 골생원은 양반이었지만 그의 집안이 권력과 부가 있는 가문은 아니었다.

35)“아조 丁未初 江原道 江陵 OOOO使道 到任時 O房으로 니어온 한 양班이…” 우리 왕조 정미년 초 강원도 강릉 OOOO 사또가 도임할 때 O방으로 내려온 한 양반이… (<매화가>, 107면)
 “쉴년 정묘초의 강원도 강능 부사 김등안전 좌정시에 책방 아각 한 양반 이씨되…”(<골생원전>, 225면)

산밧 骨生員 本宅의셔 사환 000000푸 와서 冊房의로 들이달났갓
0000000바아(매화가, 108면)

산밧 골생원 본택에서 사환000000푸 와서 책방으로 들이달려갓
0000000바아

천만외예 서울 남산골 옷춤 골싱원 본택의셔 사환종 달낭쇠 급픽 쫓차 달낭달
낭 날러와 골싱원의 보옵는 거동 달낭쇠 문안이오 네 엇지 왓논야 두 발노 셔
로셔로 거러와소 무삼 일노 완논다 싱원임써옵셔 셔간하심쩌다 (골생원전,
227면)

위에 제시한 부분은 달낭쇠가 골생원에게 과거를 보러 오라는 아버지의 편지를 전해주는 부분이다. 이때 골생원 본택이 <매화가>에서는 산 밧, <골생원전>에서는 서울 남산골로 제시되어 있다. 정확하게 골생원의 집안 내력에 대한 언급은 작품 내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남산골은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골생원의 본택이 남산골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골생원이 가난한 가문의 양반이거나 현재는 몰락한 가문의 양반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사환종 달낭쇠가 골생원의 아버지를 부를 때 생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골생원의 아버지가 문과에도 급제하지 못했고 관직에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골생원에게 관직에 나아가 무너져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임무를 막중하게 한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난한 또는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골생원인 것이다.

하지만 작품 내에서 골생원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여색에 빠져 매화와 놀기만 한다.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책임은 등한시한 채 색을 밝히고 자신의 유희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골생원의 호색한 면모는 매화와 만나 사랑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에 걸쳐 드러나는데 매화와 첫 만남 부분부터 살펴볼 수 있다.

江陵 一等名妓 梅花는 0000 房守나 분부하이, 骨生員 보던 채
 00000000 骨生員 정시리 혼약하야 로00 도 추고 흥이 나제 글이나 지어
 00000000졌기 사랑(매화가, 107면)

강릉의 일등 명기 매화는 0000 방수(房守)나 분부하니, 골생원이 보던 채
 00000000 골생원 정신이 혼약하여 로 00도 추고 흥이 날 때 글이나 지어
 00000000졌기 사랑

강릉의 일등명기 미화라 하느 기심으로 책방의 지미주이 골싱원 꺾소견이
 보든 비 처암이라 감지덕지 흑한 마암 미화다려 밤나즈로 슈작하고 농도 하고
 노리도 불너 춤도 추고 술도 먹고 시도 하고 미화 주식 알섬 모식 아조 풍덩
 싸지거다 체소한 저 골싱원 허여날 질 전이 업서 조기바닥의 쥬야 잠겨 소락
 하여 일삼의 탐화봉점이라(골생원전, 225-226면)

강릉부사에게 매화를 소개받고 처음 본 골생원은 정신이 혼약해지며 한눈에
 사랑에 빠진다. 매화에게 빠져 매일같이 사랑을 나누며 노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색을 밝히는 골생원의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다. 아울러 책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릉으로 갔지만 매화에게 빠져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부사는 골생원의 문필이 뛰어난 것을
 높이 평가하여³⁶⁾ 외직에 나갈 때 데리고 가 책방의 임무를 맡겼다. 하지만 작품
 전체에 걸쳐 살펴보아도 골생원에게 주어진 책방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언급이
 나 평가는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골싱원 거동 보소 미화의 세요허리 어후리쳐 질쓴 안고 어와 사랑이다 너는
 엇썬 제집이관디 장부 간장을 다 노인다 그딴은 어썬 장부관디 제집의 간장
 다 녹이논고 사랑々々 사랑이다 봉니방장 산세갓치 자々봉々 노픈 사랑 압니
 강 슈양쳐로 청쳐지고 느러진 사랑 이달 저달 이날 저날 누월동포지픈 이 정

36) “本질 괴여하나 骨生員 00才文 괴니하다. 비록 체질이 기이하나 00재 문필이 기이하다.”
 (<매화가>, 107면)/ “안전이 골싱원 포지 문필 사랑하야”(골생원전, 225면)

너 죽거도 나 못 살고 나 죽어 너 못 살고 사침을 절단하여 찌나 사지 마재편
 이(골생원전, 226-227면)

이 부분에서도 골생원은 매화의 허리를 잡고 노는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매화에게 빠져 노는 것에 집중한다. 매화랑 밤낮으로 놀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글솜씨를 책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매화와 시를 주고받는 데 사용한다.

강릉으로 간 이후 매화와 놀던 중에 골생원은 과거를 보러 올라오라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는다. 본가로 가야 하는 골생원은 매화와의 이별을 매우 슬퍼하며 서로 정표를 교환한다.

골생원 글 지여 미화귀 화답하고 상토를 어로민져 화치치 싸여니여 만나 옛
 짜 바더라 이것 바더 가져짜가 니칠 출싸 그롭거든 일노 보고 시름 풀나 미화
 거동 보소 송금단 속저고리 제식고름 어로만져 옥환 한 짝 쓸너니여 골생원씩
 올리면서 옥성으로 여짜오디 여보오 서방임 이것 부디 가져짜가 구무 혈싸 그
 록거던 이나 보고 시름 풀소 서로 정표한 연후의(골생원전, 230-231면)

골생원은 매화에게 화차치³⁷⁾를, 매화는 골생원에게 옥환을 준다. 김석배는 이별에 아쉬워 서로 주고받은 정표인 동곳과 옥지환을 각각 남성의 성기(내칠)와 여성의 성기(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그들이 사랑의 증표로 교환하는 것 자체가 호색한 골생원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³⁸⁾ 이별 후 본덕으로 향하면서 달낭쇠에게 매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도 골생원의 호색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달랑 달랑 달랑슈아, 너 듯거야. 우이 梅花 녀부야 저 달귀 梅姬 西時 貴妣
 一色中의 가거만눈, 梅花色을 당홀소야. 크도 적도 아이 흥고, 맛도 이도 조

37) 화차치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상투를 튼 정수리에 상투가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데 꽂는 장신구인 동곳의 일종으로 보인다.

38) 김석배, 「골생원전 연구」, 『고소설연구』 14, 한국고소설학회, 2002, 136-137면.

더니야. …… 三間大OOOOO 이 靑紗 초미 후이 치고 徘徊하야 이니 저이 금
 실 금실 놀 척의, 저의 허이 잘근 안고, 임이 잠간 마초고, 지거 나거 정도 이
 더니야.(매화가, 113면)

달랑 달랑 달랑금아, 너 듣거라. 우리 매화 여부야 저 달기 매회 서시 귀비
 일생중에 가거마는, 매화색을 당할소나. 크도 작도 아니 하고, 맛도 있고 좋더
 니라. …… 삼간대 OOOOO 이 청사치마 후리치고 배회하여 이리 저리 금실 금
 실 놀 적에, 저의 허리 잘근 안고, 입을 잠간 맞추고, 저하고 나하고 정도 있
 더니라.

매화와 이별한 후 골생원은 본댁으로 올라가는 중에 달낭쇠에게 매화에 관한 이
 야기를 늘어놓는다. <매화가>에서 골생원은 매화가 달기, 매회, 서시, 양귀비와 비
 교했을 때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한다. 이때 그 이유를 매화의 외모와 성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뒤이어 <골생원전>에서는 매화의
 정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매화에 대한 그리움을 언급하면서 내면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그리워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또한 골생원의 호색한 면모
 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골생원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들로서도 남편으로
 서도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튼날 평명의 달은 사름들은 강제화당의 달온난이 실나요 흥진자백의 부으
 난이 선달이라 머리에는 여사화요 몸의는 청삼이라 골싱원 부친 회을 니여 네
 이놈 너는 니 자식 안이라 원슈이 칙방 질도 말고 과천 나무장사나 하여라.
 글하지요 지약골 외가딕이나 단여오것소. 이 놈 과거 못 한 놈이 외가는 므엇
 할러 갈릭년야 안이 과거 못 한 사름은 외가 윤귀을 쫓는 법이요 이놈 강능으
 로 갈 줄 안다 가거라 말거나 하여라 골싱원 이 말 듯고 강능으로 가랴 하고
 잘눈 밤 질게시여(골생원전, 236면)

위의 자료는 과거에 떨어진 골생원에게 화가 난 골생원의 아버지가 골생원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다. <매화가>에서는 문답형식으로 나오지 않으며 아버지가

화내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짧게 서술되고 지나간다. 하지만 <골생원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과거를 망친 골생원에게 화가 난 부친은 자기 자식도 아니라고 하며 책방도 하지 말고 나무장사나 하라고 말한다. 외가로 간다는 골생원의 말에 과거를 못 본 놈은 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릉으로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한다. 아버지의 말에 말대꾸하며 강릉으로 가버리라는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날 잠까지 설치고 다음 날이 밝자마자 강릉으로 떠난다.

골생원의 모습을 보면 양반들이 지키는 규범 가운데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어야 한다는 부위자강(父爲子綱)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에는 친애(親愛)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부자유친(父子有親)을 지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과거에 합격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은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양반들이 지키는 규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효의 도리이기도 하다. 즉 과거에 합격하여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은 양반이라면 당연하게 나아가야 하는 길이지만 골생원은 아들로서 주어진 책임보다는 매화를 선택했다. 매화에게 정신 팔려 과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과거를 망친 이후에도 과거에 대한 걱정은 커녕 매화를 보러 간다는 기쁨이 더 컸다.

한편 <골생원전>에서는 아주 짧게 골생원의 부인이 언급된다. 골생원 부인의 등장은 그 자체로 골생원의 위선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네 이놈 방의로 들려가라 가난 질의 모친 보고 침방으로 드러간니 부인 그
 좌하여 일은 말니 철니객중의 평안니 단이여 오시오 골생원 불문부답히고 미
 화만 보와지라 원한다 보고지고 보고지고 크게 훈이(골생원전, 234면)

이미 부인이 존재하지만 강릉으로 간 골생원은 매화와 사랑에 빠진다. 집에 와서도 부인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매화만 찾는다. 부인을 대하는 골생원의 태도는 매화에게 하는 것과 상반된다. 남편으로서의 골생원의 모습은 양반들이 기본으로 삼는 규범 중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부위부강(夫爲婦綱)과 부부간에 지켜야 할 예인 부부유별(夫婦有別)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골생원은 남편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등장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 골생원의 모습

<강릉매화타령>은 판소리이기 때문에 장르적 특성 상 작품 내에 대화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 이때 골생원과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시선으로 골생원을 바라보는지 파악해 볼 수 있다.

자네 과거난 막비천슈연이와 자네 오난 질가의 미화 무덤 보고 온가 골생원
 부친상사 맞난다시 디답하되 부친 말 문난 거슨 슈리체로 디답한다 자네 열우
 신니 이번 과향의 엇지고 상하야난가 울이 열우신니 그 문전의 족금도 간 일
 업섯짜요 그려하거이와 제 신체을 무쥬공산다가 못제 그리야 발노의 나 오난
 질짜의 무더 니 마음의 심소를 그디지 상케호오(골생원전, 238면)

위에 제시된 자료에서 골생원은 강릉으로 향하던 중 길가에 있는 매화 무덤을 발견하고 이후 강릉에 도착하여 강릉부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강릉부사는 골생원의 글재주를 높이 평가했지만 여색에 빠져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과거에서 낙방하고 돌아오는 골생원을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이다. 강릉에 도착한 골생원에게 강릉부사는 과거는 하늘이 정한 운수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말하며 매화 무덤 이야기와 함께 골생원 아버지의 안부도 묻는다. 겉으로는 과거 낙방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골생원이 매화에게 빠져 노느라 과거에 집중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강릉부사는 매화를 이용해 놀려서 골탕 먹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사실을 감춘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골생원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강릉부사의 말에는 들은 척도 안 하며 대충 대답한다. 하지만 매화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만난 것처럼 슬프게 말하며 왜 매화를 길목에 묻었냐며 강릉부사를 나무란다. 아버지의 안부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직 매화만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습과 심지어 자신의 상사에 해당하는 강릉부사를 나무라기까지 하는 골생원의 모습에서 여자에게 눈이 멀어 자신이 지켜야 할 상하관계조차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강릉부사로 하여금 당연히 비판적으로 골생원을 바라보게 한다.

다음은 골생원과 매화가 이별하는 가운데 매화가 골생원에게 떠나지 말라고 불

잡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중 한 부분이다. 이 장면에서 매화가 골생원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미화 옛싸오디 셔방임 줌글 가지고 과거 못하리로다 가지 말고 예셔 말무하
 야 싸족꼬도리로 소년알관역을 쫓싸 췌 마쳐셔 사지밀성하오(골생원전, 229면)

매화는 골생원과 이별하기 싫어 가지 말라고 붙잡는다. 매화가 골생원을 잡는 내용을 보면 진심으로 골생원과의 이별에 슬퍼하고 붙잡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골생원을 붙잡는 매화의 말을 보면 골생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강릉부사가 칭찬했던 골생원의 유일한 장점인 글쓰는 재주를 가지고 매화는 줌글이라고 말하며 과거를 보러 떠나려는 골생원에게 줌글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차피 과거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니 가지 말라고 말한다. 매화조차도 진정으로 골생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골생원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골생원전>에서 골생원과 달낭쇠가 나눈 대화는 주목해 볼 만하다. 본래으로 올라오는 길에 골생원과 달낭쇠가 나눈 대화에서 달낭쇠는 아랫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골생원을 놀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설은 정담 쟁니 할 제 구종 든 달낭쇠 차이다 보며 업다일언 재미 그져기보
 텨 하든 이별 이제까지 하제 여보오 셔방임 어셔 가옵시다 옛날을 모로시오
 천하 영웅 관운장도 여몽의 간계중의 구렁직스하여씨이 셔방임도 그 궁기 싸
 지면 엄병덤병하다가 둠병사하거디면 집의도 못 가올이다그 말이 올타 하고
 말머리를 두룻치며 채을 모라갈 제 달낭々々 모라간이 골싱원 거동 보소 미화
 도라보고 싯푸되 외씩불기 말 타셔 만일 도라보다가는 낙상이 가례하야 달낭
 쇠을 달닉일 제 달낭쇠야 네 물을 천々이 모라라 니 가다가 옛 사췌마 어리다
 고요 니 가다가 감사췌마 다 먹고 남척이요 니 가다가 괴정국의 흰 밥 마라
 췌마 누을 피췌 누이자고요 니 가다가 비상밥의 복기알 사췌마 먹고 죽거요
 이 말 너 타라 니 췌마들마 그리 마오 상전이 몰 타고 종이 구종을 들 제 췌
 이 말 타고 상전이 구종드논 디는 어디셔 보아소 어 니 놈 잘못하여씨(골생원
 전, 231-232면)

매화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골생원은 보다 못해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는 달낭쇠의 재촉에 그제서야 발걸음을 내딛는다. 하지만 골생원은 매화를 조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엿을 사 줄테니 천천히 말을 몰라고 달낭쇠에게 말한다. 여기서 달낭쇠는 바로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 이어 골생원은 감을 사 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달낭쇠는 지금 상황과 아무런 관련 없는 대답을 한다. 그러자 골생원은 기정국에 흰 밥을 사 줄테니 천천히 가자고 한다. 조건으로 제시하는 물건이 처음 말했던 엿보다 점차 좋아지는 것이 보인다. 골생원의 의도를 알아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낭쇠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피똥을 눈다며 대꾸한다. 이어 제시한 복개알을 사 준다는 제안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골생원은 자신이 말을 몰테니 달낭쇠에게 타라고 말한다. 그제서야 달낭쇠는 그런 법은 없다며 처음으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한다.

이 부분에서 달낭쇠는 자신이 모시는 윗사람의 말에 지속적으로 못 들은 척하고 엉뚱한 말을 하며 말대꾸를 한다. 이런 달낭쇠의 태도는 골생원이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으며 비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골생원은 사환 종에게도 무시당하고 한심하게 여겨지는 대상인 것이다.

한편 사설정착본 안에서 달낭쇠와 비슷한 인물로 방자, 시전아이, 초동목수 아이, 부종녀 등이 있다. 먼저 방자부터 살펴보면 여타 다른 판소리에 등장하는 방자에 비해 나오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골생원의 잘못된 행동을 직접적으로 지적한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미화 무덤의 가, 어동육셔 진설하고, 骨生員 업져 祝文 날운 후어 冊房으로 와서 종시 미화을 못이지저, 그저 아고 아고 痛哭하이, 방자. “여보시오. 父母 주근디 ‘아고, 아고’ 헝지, 첩 주근디 ‘아고, 아고’ 헝요.” 骨生員 부긔여워, “父母 주근 디는 실풀 야자 아고요. 첩 주근 디는 사양 야자 아고이라. 아고 아고 셔운지거.(매화가, 122면)

매화 무덤에 가, 어찬은 동쪽에 육찬은 서쪽에 차려놓고, 골생원이 옆드려 축문을 읽은 후에 책방으로 와서 끝내 매화를 못잊어, 그저 아고 아고 통곡하니, 방자. “여보시오. 부모 죽은 데 아고 아고 하지, 첩 죽은 데 아고 아고 하오.” 골생원이 부끄러워, “부모 죽은 데는 슬플 애자 아고요. 첩 죽은 데는 사

랑 애자 아고이라. 아고 아고 서러운지고.

영신 상향 축문을 맞친 후의 지비하며 통곡한다 김광슈 죽은 처자 디흐중의
 만났시니 우리도 그갓치 이제 보겨흐옵소서 이고々々 보고지고 일엇탕 통곡홀
 제 방자 옛자오디 위친상사의 이고々々 우제 첩의 상사의 이고々々 우난잇가
 이 놉 네 몰른다 위친상사난 슬풀이식건이와 첩의 상사난 살앙 이짜라(골생원
 전, 239-240면)

매화의 죽음을 슬퍼하는 골생원은 매화를 위한 제사를 지내준다. 축문을 마친 이
 후에 통곡하는 골생원을 보고 옆에 있던 방자는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고
 작 첩의 죽음인데 이렇게 우느냐고 비판한다. 그러자 골생원은 부모 죽음은 슬플
 애자 애고고 첩의 죽음은 사랑 애라 애고라고 답하는데 이는 골생원을 더욱 우스
 팡스런 인물로 만드는 것일 뿐이다.

다음에 제시한 장면은 매화에게 줄 정표를 사러 시장으로 간 골생원이 시전아이
 와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다.

“이보소, 아무 거도 아이 사면서 이전 저전 단이언가.” 하고 뺨을 한번 탁 치
 이, 니 兩班이 부끄러워라고 다라나서 髡生員 줌치를 열어보이, 돈 칠푼이 드어거
 을, 大小의 情表나 흐자 흐고, 大針 小針 中針이며, 남富魚 남도지며 조雁상을
 다아셔 샅고 샅고, 찌삿 소미 속의 디이치고 다악다악 흐는 말이.(매화가,
 116-117면)

“이보소, 아무 것도 아니 사면서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는가.” 하고 뺨을 한번
 탁 치니, 이 양반이 부끄러워하며 달아나서 골생원이 줌치를 열어보니, 돈 칠푼
 이 들었거늘, 크든 작든간에 정표나 하자 하고 대침 소침 중침과, 남부어 남도
 지와 조안상을 사서 싣고 싣고, 또삿 소매 속에 들이치고 다악다악 하는 말이,

아무것도 사지 않고 물건만 보는 골생원에게 화가 난 시전아이는 뺨을 내려친다.
 골생원은 뺨을 맞은 것이 부끄러워 달아나지만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화에게

줄 정표를 사러 다시 돌아온다. 시전아이에게 골생원은 양반이자 손님이고 나이가 많은 어른이다. 시전아가 감히 골생원의 뺨을 내리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신에게 아무리 부득이한 행동을 하여도 자신보다 신분도 높으며 나이도 많은 사람의 뺨을 내리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설정착본에서는 뺨을 맞는 골생원을 볼 수 있다. 시전아이에게 뺨을 맞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골생원의 권위가 얼마나 추락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골생원은 신분도 낮고 나이도 어린 아이에게 뺨을 맞고 부끄러워하지만 이내 매화에게 선물할 수 있는 돈을 발견하고 기뻐한다. 이러한 골생원의 모습은 권위의 하락뿐만 아니라 골생원이 얼마나 철이 없는 한심한 존재인지를 더욱 부각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자신보다 신분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등장인물에게 무시당하는 장면은 초동목수 아이와의 대화 장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草童牧黍 아흐덜이 노야 호고 낭글 갈 저, 骨生員 반거랴고 문는 말이, “우리 梅花 무병이 니논야?” 저 아흐 다담호되, “잘잇其 조첫오, 骨生員 덧난 후로 상사병이 덧어 신음호다가 주근 후의 使道 불상 예기고 骨生員 오다 보거 큰 길가의 무덜시이.” 골생원 그 말 듯고 답담호다. “너 어던 아흐간디 어彦 아모 말 디답 그어호아?” 저 아흐 거동보소. “그어호면 난는 가저.” 骨生員 솜솜 상각호이, 또 나무야션은 아이 날너주고 갈덜 호기오, 骨生員 살살 달가며셔 문는 말이, “梅花 무덤이 어디만치 이논야? 어여 밧비 일너도아.” 저 아흐 디답호되, “저그저그 큰질 갖의 가저 보면 알거요.” 호고 휘긴 다야난다. (매화가, 118-119면)

초동목수 아이들이 놀러 하고 나무하러 갈 때, 골생원이 반가워서 묻는 말이, “우리 매화 아무 병 없이 있느냐?” 저 아이가 대답하되, “잘있기는 커녕, 골생원이 떠난 후로 상사병이 되어 신음하다가 죽은 후에 사또가 불쌍히 여기고 골생원이 오다 보게 큰 길가에 문었소.” 골생원이 그 말을 듣고 답담하다. “너는 어떤 아이기에 어른 아무 말 대답이 그러하냐?” 저 아이 거동보소. “그러하면 나는 가저.” 골생원이 곰곰 생각하니, 또 나물러서는 아니 일러주고 갈듯 하기로, 골생원이 살살 달래면서 묻는 말이, “매화 무덤이 어디만치 있느냐? 어서 바빠 일러주어라.” 저 아이가 대답하되, “저기 저기 큰길 가에 가저 보면 알거요.” 하고 휘익 달아난다.

강릉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생원은 초동목수 아이들을 마주친다. 골생원은 매화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반가워 아이들에게 매화의 안부를 묻는다. 한 아이가 매화는 상사병에 걸려 죽었고 길가에 묻었다고 대답한다. 매화가 죽었으리라는 생각지도 못한 골생원은 답답한 마음에 대답한 초동목수 아이에게 되려 아무 말이나 한다고 꾸짖는다. 이에 아이는 골생원의 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골생원은 그대로 매화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 아이가 가버릴까봐 자신이 물려서서 아이를 달래며 매화의 무덤 위치를 묻는다. 아이는 그마저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저기 큰 길 어딘가에 가면 있다고 대답하고 그냥 가버린다.

앞서 살펴본 시전아이와 같이 초동목수 아이 또한 골생원보다 신분도 낮고 나이도 어리다. 골생원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수시로 무시당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이 눈치를 보며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골생원과 부종녀의 대화 장면이다.

“우이 書房任야. 九天의 도야간 梅花 날을 보소.” 骨書房 반거드고 曰각 썬여 내더셔이, 미화는 화임 중의 물을 감초오고 付중예만 들어가이, 骨生員 짬씩 놀나야 미화 부야지라 혼는 놈이 예는 업다. 부중에 달너드어 骨生員 검저 안고 무슈이 녹낙헝다가 동나예 썩카 우뎃 켁켁 씨고 도야가이.(매화가, 124면)

“우리 서방님아. 구천에 돌아간 매화 나를 보소.” 골서방이 반겨 듣고 왈각 뛰여 내달리니, 매화는 화림 중에 몸을 감추고 부중(府中)에만 들어가니, 골생원이 깜짝 놀라 매화 보려 하는 놈이 여기는 없다. 부중에 달려들어 골생원이 검저 안고 무수히 즐기다가 동네에 수캐 울듯 켁켁 짓고 돌아가니,

부종녀 거동 보소 골생원을 덤석 안고 막니즈식 어루다시 하다가 우지 마라네 무어시 먹고 시프냐 이디지 보치논야 골생원 쯤지을 불근々々 주무르며 킨 소하야도 그 놈은 쯤즈쇠고 만첩청산 늘근 범이 살썩 기을 노코 어로논 당한참을 어로난이(골생원전, 243면)

부종녀는 매화 대신 골생원을 속이러 들어가는 인물이다. <매화가>에서는 정확히 부종녀라고 등장하지는 않으나 <골생원전>과의 비교를 통해 부중예가 부종녀를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³⁹⁾ <매화가>에서 부종녀는 매화 대신 골생원에게 들어가 밤새 놀다 나온다. <골생원전>에서는 이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골생원은 부종녀에게 속수무책으로 희롱 당한다. 심지어 부종녀는 골생원을 막내 자식을 다루듯이 대한다. 부종녀가 신분은 낮지만 골생원을 양반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얽잡아 봄을 알 수 있다. 또한 매화의 외적 모습을 더 좋아하고 색을 밝히던 골생원이 얼굴도 부종이 나서 못 생긴 부종녀에게 색을 가지고 속수무책으로 희롱당하는 장면은 골생원을 한심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풍자하고 희화화시킨다.

이상에서 매화에게 빠져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골생원은 사회적, 가족적으로 그리고 달낭쇠, 방자 등의 주변인물에 의해서 희화화되고 풍자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골생원은 스스로를 희화화시킨다. 양반층에 속하는 골생원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나 규칙들을 스스로 파괴하고 어김으로써 그 모습을 통해 양반이 갖는 권위를 무너뜨리고 위선적인 면모를 양반 스스로 폭로하게 하여 희화화시키고 풍자한다.

3) 작품 내에서 골생원을 바라보는 시선 및 의의

지금까지 서술자의 시선으로 그려진 골생원의 모습과 등장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 골생원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작품 내에서 드러나는 골생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은 단 하나도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오직 매화에게 빠져 지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양반으로서 뛰어난 글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서술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부 부정적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보통 양반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고 믿는 규범과 윤리를 바탕으로 그것들을 지키면서 생활하지만 작품 내에서 골생원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규범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그 규범을 무너뜨린다. 이를 통해 골생원은 스스로 자신을 부정적이고 비판받아 마땅한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골생원의 모습은 작품 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골생원과 같은 계층에 속하는 강릉부사의 시선에서뿐만 아니라 매화, 달낭쇠, 방자, 시전아이, 초동목수 아이, 부종녀 등과 같이 자신보다 신분이 낮거나 나이가

39) 각주 31) 참고.

어린 인물의 시선에서도 또한 골생원을 무시하고 비웃으며 비판한다.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 골생원은 훨씬 더 한심하고 보잘 것 없는 인물로 형상화 된다.

이는 <강릉매화타령>이 판소리라는 것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판소리의 향유층은 민중들이었다. 그들은 현실에서 만나는 양반의 모습을 판소리 속에 넣어 표현하였고, 자신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인물에 의해 희화화되고 조롱당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골생원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달랑쇠의 태도는 당시 판소리를 향유하는 민중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투영시켜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장르적 특성에 맞추어 좀 더 비교해 살펴보면 다른 여타 판소리에서도 달랑쇠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춘향전>, <배비장전>에 나오는 방자, <적벽가>에 등장하는 정옥⁴⁰⁾ 등이 그들이다. 작품 내에서 방자라 불리거나 다른 명칭으로 불리지만 방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완전히 동일한 인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부 봉건적인 신분제에서 아랫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자신의 위치에 맞게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도리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윗사람을 희화화시키고 풍자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을 일컬어 ‘방자형 인물’⁴¹⁾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다른 인물들보다 윗사람과 비교적 가까운 자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윗사람의 사적인 문제까지 전부 알고 관여한다. 윗사람과 누구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인물을 통한 윗사람에 대한 희화화나 풍자는 향유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해준다.⁴²⁾

판소리 이외에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가면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뚝이가 있다. 말뚝이는 가면극 안에서 신분은 낮지만 양반과 대립 관계에서 양반을 풍자하거나 심지어 공격한다. 이런 말뚝이의 역할은 양반에 대한 위선을 폭로하여 골계적 효과를 높인다. 판소리나 탈춤은 조선후기에 활발하게 공연되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후기는 역사적으로 격변하고 있던 시대였다. 체제를 유지하려는 양

40) 정옥은 조조에게 조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대신 갑옷을 입고 가서 빌라는 조조의 말을 듣고 죽음에도 대신(代身)이 있냐고 말하며 조조를 매도하는 방자형 인물의 면모를 보여준다. 권두환, 서종문, 「房子型 人物考-판소리系 小説을 中心으로」,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한국고전문학회, 1978. 14면.

41) 위의 논문.

42) 김흥규, 「房子와 말뚝이 : 두 典型의 比較」, 『한국학논집』 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8.3, 885-895면.

반층과 그 질서를 파괴하려는 평민층이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평민층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욕망 또는 양반층에 대한 불만이나 비난을 탈춤에서도 하였다.⁴³⁾ 그렇게 나타난 인물이 바로 ‘방자형 인물’, 말뚝이인 것이며 <강릉매화타령>에서는 달랑쇠가 이에 해당한다. 때문에 <강릉매화타령> 속에 나타나는 달랑쇠 또한 조선후기를 보여주는 인물이며 평민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라 말할 수 있다.

사설정착본 전반에 걸쳐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골쟁원은 실은 이름에서부터 외모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시선이 드러나고 있다. 사설정착본에서 골쟁원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아조 丁未初 江原道 江陵 〇〇〇〇使道 到任時 〇房으로 니어온 한 양班子
 〇〇〇〇〇지와 體法불 작시면 身長〇 두뺨 可웃 〇〇〇〇암니망근뺨 꽃오
 입은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춤치 자바 훌친 덧히고, ㅎ는 〇〇〇〇〇〇 고요 난장이
 곱사동이 외작불규 안잔잘이 〇〇로곡 생긴 양班子 비록 體질 고티하나 骨生
 員 〇〇才文筆 可니ㅎ다.(매화가, 107면)

우리 왕조 정미년 초 강원도 강릉 〇〇〇〇 사또가 도입할 때 〇방으로 내려
 온 한 양班子 〇〇〇〇〇 지와 체법(體法)을 볼 것 같으면 키가 〇 두뺨 정도
 〇〇〇〇 암니 망건뺨 꽃오 입은 〇〇〇〇〇〇〇〇〇 춤치 잡아 훌친 듯하고, 하
 는 〇〇〇〇〇〇 고요 난장이 곱사동이 외작불규 앓은뺨이 〇〇 로곡 생긴 양반
 이 비록 체질이 기이하나 골쟁원 〇〇재 문필이 기이하다.

중년 정묘초의 강원도 강릉 부사 김등안전 좌정시에 책방 아각 한 양반 이
 씨되 성은 골이요 명은 불견이라 합한이 골불견이라 이 양반 행동거지 열골
 체법 불작시면 신장은 일척이요 면관은 사면 두 뺨 가웃시라 곱시등 부룡난시
 압피 망상지티도논 불 빠져 니여바린 얼명이 썬 바괴요 입은 도리춤치 훌친
 덧히고 두용비 외작불기 안짱다리 조암발의 천상줄노 아조 꼭겨 부득설인 양

43) 서종문, 「말뚝이형 인물의 형성」, 국어교육연구 37, 국어교육학회, 153-172면./ 말뚝이가 여러 지역에 따라 방자형, 마부형, 노비형, 시정잡배형으로 다양하게 전승된다는 연구가 있어서(김성룡, 말뚝이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본 탈춤의 서술 미학, 호서어문연구 1, 호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75-79면.) 말뚝이형과 방자형을 구분하는 데는 조금 더 언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말뚝이형과 방자형을 나누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강릉매화타령>에 등장하는 달랑쇠의 성격 및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뚝이형과 방자형을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략한다.

반이엿싸(골생원전, 225면)

두 사설정착본에서 골생원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희화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위에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골생원은 생긴 것부터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그는 난장이, 곱사둥이, 외작불구, 앓은뱅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성은 골이요 명은 불견이라 합한이 골불견이라”⁴⁴⁾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그를 골불견이라고 부른다. 골생원의 성(姓)에 해당하는 골(骨)은 색을 즐겨 탐하는 사람, 즉 호색꾼을 가리키는 색골(色骨)의 골(骨)로 볼 수 있다. 골에 불견을 더해 같잡고 우스워서 차마 볼 수 없다는 뜻인 골불견으로 골생원을 불렀다. 골생원이라는 이름을 골불견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색을 밝히는 모습을 이름에서부터 드러내어 골생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희화화시키며 풍자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⁴⁵⁾ 애초에 골생원은 그 인물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고 이야기 전반에 걸쳐 골생원의 부정적인 면모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3편의 근원설화들에서 판소리 사설정착본으로 형성되어 오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속임을 당하는 자가 책방으로 그려지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에 부정적인 부분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두 사설정착본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며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토록 부정적 인물인 골생원의 직책을 하필이면 책방으로 설정한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하고자 한다.

2. 조선후기 책방의 존재와 <강릉매화타령>의 주제

앞서 사설정착본 속 골생원은 외모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전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럼 골생원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을까? 책방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식으로 행동했기에 판소리 속에서 책방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골생원이 부정적으로 서술되고 비판의 대

44) 김진영(외) 편저, 『실창판소리사설집』, 서울:박이정, 2004, 225면.

45) 김석배, 「골생원전 연구」, 『고소설연구』 14, 한국고소설학회, 2002, 147면.

상이 되었을까? 또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대상인 골생원에게 왜 책방이라는 직위가 부여된 것일까? 먼저 책방이 어떤 일을 맡아 하는 직책이었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친인척이나 친구 사이에 외직을 맡아 나가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가서 거취를 함께하는 자가 있다. 세상에서는 이를 책방(冊房)이라고 한다. 수령이 된 자는 홀로 거처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책방(冊客)을 데리고 가서 형제나 자질(子侄)처럼 친하게 대우해 준다.⁴⁶⁾

회계(會計)는 좌수(座首)와 이방(吏房)이 담당하도록 하고 책방(冊房)에게는 맡기지 말라.⁴⁷⁾

첫 번째 윤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책방은 수령이 외직을 나갈 때에 데리고 가는 자로, 수령이 개인적으로 뽑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관료체계 안에는 속해 있지 않는 지위인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임성주의 기록을 통해 책방은 글을 쓰는 일과 함께 주로 수령을 도와 중요한 일 중 하나인 회계를 도맡아 처리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책방은 누구보다 수령과 가까운 위치에서 수령을 보좌하며 일을 처리하는 존재였다.

책방이 수령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판소리 <강릉매화타령>에서 핵심적인 세 인물이 강릉부사-골생원-기생 매화로 그려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속임의 구조 아래서 속임을 당하는 자는 속임을 계획하는 자와 속임을 실행하는 자와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릉부사, 골생원, 기생은 모두 관아에 속해 있는 인물들로서 관아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인물들이다. 이에 따라 판소리 <강릉매화타령>은 관아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관변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부사와 기생 두 인물과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교류하거나 마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장 대표적 인물이 바로 책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인물로 책방이 선택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46) 윤기, 이규필 역, <가금(家禁)>, 『무명자집』 「문고」 제6책,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47) 임성주, 이상현 역, <여사제치공 7월(與舍弟釋共 칠월)>, 『녹문집』 제10권, 한국고전번역원, 2016.

러나 속임을 당하는 자로 책방을 선택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오히려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즈음 풍습에 소위 책객(冊客)이라는 것이 있어 회계를 맡고 있는데, 이는 예(禮)가 아니니 없애야 한다. - 다음 병객조(屏客條)에 자세히 나온다. - 만약 자기의 글솜씨가 거칠고 졸렬하면, 한 사람쯤 데리고 가서 서기(書記)의 일을 맡기는 것은 좋다.⁴⁸⁾

책방의 주 업무는 수령의 글솜씨를 보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령은 이것 외에 회계 관련 일을 책방에게 맡기기도 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관료체계에 속하지도 않은 자가 회계의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였을 것이다. 때문에 책방은 실제로 일할 때마다 아전들이 사사건건 간섭하고 괴롭히는 등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즈음 풍속에 소위 책객(冊客)이란 한 사람을 두어 회계를 맡겨서 하기(下記) - 즉 날마다 쓰는 쌀·소금 등의 장부. - 를 살피게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관부의 회계는 무릇 공용(公用)이건 사용(私用)이건 기입하지 않는 것이 없고, 못 아전이나 하인들이 관계되지 않는 자가 없는데, 지위도 없고 명분도 없는 사람에게 이 권리를 총람(總攬)하게 하여, 날마다 재정을 맡은 아전·노비들과 맞네 적네, 비었네 찻네 하도록 하니 어찌 사리에 맞겠는가. 이 책객이 아전들의 부정과 숨기는 짓을 적발하면 그 원망은 수령 자신에게 돌아오고 잘못된 일들을 용서하면 해는 수령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자잘한 하기(下記)는 지나치게 따질 것이 못 된다.⁴⁹⁾

《상산록(象山錄)》에 이렇게 말하였다. “요즈음 풍속은 책객(冊客)에게 명하여 대조 검사하게 하니 책객이 정직하게 살살이 살피면 비방하는 소리가 물 끓듯

48) 정약용, 이정섭 역, 『목민심서』 부임 6조 / 제2조 치장, 한국고전번역원, 1986.

49) 위의 책 옮기 6조/ 제4조 병객.

일어나서 ‘책객이 어찌 정사(政事)에 간여하느냐.(客何干政)’라는 문구가 반드시
 편목(貶目)에 오를 것이고, 책객이 사정을 두어 농간을 부리면 비웃는 소리가
 쏟아져 나와서 아전들과 이익을 나누어 먹는 폐단을 막아낼 길이 없을 것이다
 .”⁵⁰⁾

수령이 사사로이 데려온 책방의 존재는 관료체제 안에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 말
 이 많았다. 책방이라는 지위는 처음부터 관료체제에 속해 있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책방은 정직하게 일을 처리해도 못마
 땅해 하는 말이 많아지고, 사정을 두어 꼼수를 부리면 그 또한 비판의 말이 많아지
 기 마련이었다.

또한 회계의 일은 아전이나 하인들과 왕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책방이
 다른 자들과 협동하여 공금에 손을 대기 쉬웠고 회계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만나
 는 아전들과 손을 잡고 이득을 취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직접 제안하여 일을 도모
 하기도 하였다. 아래 자료를 살펴보면 그런 책방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
 다.

매양 보면 인색한 사람은 책객에게 거둬서 하기(下記)를 자세히 밝혀
 내게 하는데, 그 때문에 책객은 아전과 약속하기를, “수령의 성품이 깎기를
 좋아하니 나도 괴롭다. 모든 소비되는 비용을 네가 더 기록하면 내가 그것을
 깎겠다. 소용되는 기름이 5홉이면 너는 7홉으로 늘리고 나는 5홉으로 깎으면
 네게도 손해가 없고 관에서도 잃는 것이 없으며, 나는 중간에서 허물과 책망
 을 면하게 되니 또한 서로 좋지 않겠는가.” 하면, 아전들은 기꺼이 그와 한통
 속이 되어, 몰래 토산물을 책객에게 뇌물로 보내고 책객은 남용(濫用)을 덮어
 주어 이익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⁵¹⁾

‘책객(冊客)’이란 것은 제 아들놈과 잠시 들른 과객에 불과합니다. 저는 혼자
 말을 타고 내려와서 남포현(藍浦縣)에 수십 리 못 미친 곳까지 와서야 마중 나
 온 고을 사람들을 만나고 곧장 부임하였으니, 도중에 물어보려 한들 어느 겨

50) 위의 책 율기 6조/ 제2조 청심.

51) 위의 책 율기 6조/ 제4조 병객.

를에 누구에게 물을 수 있었겠습니까. 남쪽에서 왔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이와 같이 없는 일을 꾸며 내어 비방하다니 인심과 세태가 참으로
 두렵습니다.⁵²⁾

앞의 글에서는 책방이 아전과 손잡고 나라의 재정을 어지럽히는 모습이 잘 나타
 나 있다. 책방이 아전에게 먼저 공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이속을 챙기자고 제안하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기를 밝혀내는 일을 할 때 자신을 데려온 수령이 깎는 것
 을 좋아하는 성품을 지녔다고 하며 뒤에서 그것에 맞추어 아전에게 비용을 더 높
 게 말하면 자신이 그것을 깎겠다고 말한다. 수령을 핑계 삼아 자신의 이득을 취하
 려는 책방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신을 데려온 수령에게 피해가 가는 것에도 아랑
 곳하지 않고 책방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

뒤의 글에서는 작자가 남포 현감으로 있을 때 이조판서 이병정에게 답한 글로,
 남포출신이었던 이병정이 작자를 남포 현감으로 내려 보낼 때 자기 집안사람들을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냈고 그
 에 대해 답한 편지로 생각된다. 이 편지 안에 이방, 책객의 폐단에 대한 작자의 해
 명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미루어 보아 당시의 대부분의 관리가 나라의 공금에
 손을 대는 폐단이 비일비재 했으며 그것으로 관리들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나라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당대의 모습이 드러난다.

판서 이병정에게 답지를 하는 작자는 지금 있는 아전은 공금에 손대지 않은 자
 라고 알고 있었으나 역시 현재 이방 또한 공금을 축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됴됨이가 의심받자 자신이 데려온 책방은 잠시 들린 과객에 불과하다고 설
 명한다. 자신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책방의 존재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아전과 관리
 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의 이속을 취하는 동안에 책방 또한 그들과 협력하여
 폐단을 저지르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의 두 자료에서는 책방이 직접 제안하여 아전들과 손을 잡거나 혹은 책방이
 아전들과 협동하며 나라의 재정에 손을 대는 등 책방이 나라의 공금을 횡령해 사
 사로이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
 난 부분을 아래 자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52) 윤기, 강민정 역, <답이판서 병정 별지(答李判書 秉鼎 別紙)>, 『무명자집』 문고 제4책, 성균
 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이름을 모르는 책객(冊客) 허가(許哥)가 뇌물을 준 강천구(康天九)·차인철(車仁哲)·이남장(李南章)을 진흙하는 데 100냥을 보탠 공로를 이유로 차출하였습니다. 지금 이 3인을 차출할 때 이렇게 전미(錢米)의 거래가 있었으니, 뇌물을 바치고 차임되기를 도모했다는 말이 있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 본도의 절미(折米)하는 규정은 간사한 짓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통로로서 막객(幕客) 구운익(具胤翼)과 책객(冊客) 허숙(許璠)이 안에서 농간을 부려 차임할 때에 추악한 비방의 말이 많았고, 또 창정(倉政)에 대해서도 좋지 못한 소문이 낭자하였으므로 본영에서 관문(關文)을 보내 붙잡아 와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 구성(龜城)의 좌수가 공초하기를, ‘향임이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애당초 듣지 못하였으나 향인(鄉人) 차명제(車命濟)가 배대항(裴大恒)을 향소(鄉所)로 추천한 망기(望記)를 보고는 취중(醉中)에 「이 사람이 책객(冊客) 전익량(田益良)과 한통속이 되어 그렇게 된 것이다.」 하였습니다. 관가에서 잡아들여 따져 묻자 전익량이 폐단을 일으켰다는 말을 관아의 뜰에서 큰소리로 말하였으니, 면박하였다는 말은 과연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익량은 바로 관가 기첩(妓妾)의 친속(親屬)입니다. …… 태천(泰川)의 좌수와 유리(由吏) 등이 공초하기를, …… 총애 받는 기생이 권세를 부린 일은, 기생 옥계향(玉桂香)이 관아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새해 첫날에 8개의 창고 감관을 모두 그의 말에 따라 차출하여 자리마다 20냥 혹은 25냥을 거두고, 좌수와 별감은 다달이 개차(改差)하여 좌수 2인은 각각 70냥을 거두고 별감은 각각 35냥을 거두었으며, 돌아갈 때에는 풍헌(風憲) 다섯 자리도 개차하여 각각 전(錢) 15냥을 거두었는데, 옥계향의 오라비 처택(處宅) 등 삼형제가 서로서로 봉납(捧納)하였다고 전하는 말이 낭자하였습니다. 토착인 백종옥(白宗勗)이 책실(冊室)에 들어가 머물면서 방기(房妓)와 화응(和應)하여 갖가지 농간을 부렸습니다.’ 하였습니다. …… 전 현감 목만중(睦萬中)은 평소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없었고 자기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는 지조도 없었습니다. …… 대저 총애 받는 기생에게 정신이 흘러 완전히 체통을 잃었고 기생의 오라비와 책객이 안팎에서 한통속이 되어 향임을 판 수효가 이렇게까지 많았습니다. …… 전교하기를, 그 가운데 향임을 판 무리는, 우선 도백으로 하여금 이른바 나쁜 선례를 남긴 아객(衙客)과 책객(冊客)을 아울러 감영의 옥에 단단히 가두고 전량(全量)을 각 해읍(該邑)의 백성들에게 지급한 뒤에 장문하게 하고, 결말을 짓기 전에 도신이 직접 일차(日次)에 따라 신문하고 추핵(推覈)하여 동추(同推)한 데에 관한 장계와 함께 계목(啓目)을 작성하여 올리게 하라.⁵³⁾

53) 송은적 역, 『일성록』 정조 14년 경술(1190) 4월 22일(임신), 한국고전번역원, 2007.

그를 시켜 육방 관속을 총괄하게 하여 뇌물을 받아들이고, 공역(公役)을 감독하게 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며, 외부 사정을 염찰하게 하여 민정(民情)의 정보를 수집한다. 저 책객이란 자가 성실하고 공정하여 사심을 품고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터럭만큼도 없다면 안 될 것 없겠지만, 세상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남을 따라가 책객 노릇을 하는 자가 어찌 꼭 성심으로 주인을 위할 뿐이겠는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뿐이다. 뇌물을 받을 때엔 중간에서 몰래 가로채고서는 도리어 버젓이 상인에게 되속여 팔아먹는다. 공역을 감독할 때엔 남 먼저 좋은 것을 취하고 뒤에는 책임을 면하려고 둘러댄다. 민정을 염찰할 때엔 혹 꾸며서 아부하거나 혹 과장하여 겁을 준다. 도움 되는 실익이란 없고 말로 다 하기 어려운 폐단만 있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보면 주인은 혹 몽땅 손실을 입어 딱하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책객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가 없다. 내 모르겠다만 외임을 맡아 나가는 것이 오로지 책객을 위해서이던가? 필경에는 전최(殿最 고과 평정)의 제목이 나오면 ‘책객이 비방을 초래하였다(冊客招謗)’ 하기도 하고, ‘어찌 책객을 거절하지 않는가(胡不謝客)’ 하기도 하여 낮은 고과의 제목에는 모두 책객이란 글자가 들어 있다. 이른바 주인이란 자도 어리석지만 책객 역시 주인을 배반한 것이 많으니, 그가 한 짓을 추적해 보면 모두 속이고 훔치는 술법이다. 아무리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다 한들, 차마 이런 짓을 하여 남을 곤경에 빠뜨리고 자신을 살찌운단 말인가?⁵⁴⁾

《다산필담(茶山筆談)》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전체짐(傳任)이라는 것은 여점의 큰 폐단이다. - 속담에 전체짐(傳任)을 노복(路卜)이라 한다. - 여러 영(營)의 비장(裨將)들과 여러 고을의 책객(冊客)들이 그 상사(上司)를 속이고, 사사로이 행장을 꾸려 가지고 관아(官衙)의 문을 겨우 나서기만 하면 당장에 매질을 가한다. …… 저리(邸吏)·도장(道掌)·토호(土豪)·탕자(蕩子)들까지도 머리에 전립(氈笠)을 쓴 교활한 하인 한 명을 거느리고 와서 여점의 우두머리를 불러내어 그 등을 채찍으로 갈기고 공무니를 발로 차면서 전체짐을 독촉하지 않는 자가 없다. 임금의 공물(貢物)을 수송하는 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여 차역(差役)·면역(免役)의 법을 여러 번 변경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제

54) 윤기, 이규필 역, <가금(家禁)>, 『무명자집』 「문고」 제6책,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필부(匹夫)와 천인(賤人)까지도 도리어 이런 짓을 한다는 말인가. …… 영비(營裨)·책객(册客)·토호(土豪)·경간(京奸)의 간악한 아전들이 다 사사 위엄으로 교자를 메게 하기 위하여 들에서 농사짓는 백성들을 개나 닭 몰듯 몰아세워 뺨을 치고 머리채를 잡아채며 갖은 행패를 예사로 한다.⁵⁵⁾

첫 번째 자료는 정조 때 기록으로 평안 감사 심이지가 영변을 포함하여 총 8개 고을의 전 수령을 조사하여 왕에게 올린 일종의 보고서이다. 이 자료는 수령들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고 폐단을 저지른 것을 전부 제시해 두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아전과 책객 사이에 어떤 부당한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전문을 제시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만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적인 기록 내용을 간략하게 말해 둔다. 당시 영변 지역이 크게 수해를 입었다. 수해를 입은 곳은 원래 세를 감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화세를 내는 것을 줄이기는커녕 기존보다 더 거두어들였으며 본관이 술 마시기를 즐겨하였다. 또한 본관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횡포를 일삼았다. 하물며 나라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운반세는 태반 부족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채우기 일쑤였다. 수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백성들은 힘든 생활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흉년이 들었을 때 본관들이 아무렇게나 소비하는 것이 걱정되어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까지 술을 금지하였는데 그새를 못 참고 백성들에게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벌금을 받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

이런 상황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여러 지역에서 수령과 아전이 향임, 책방, 아객 등과 뇌물을 주고받았는데 김채연은 비장 구윤장과 뇌물 100냥을 주고 받았고, 이름 모르는 책객 허가는 뇌물을 준 강천구, 차인철, 이남장이 진흙하는데 100냥을 더했다는 이유로 차출했다. 또한 간사한 짓을 하기 좋은 통로는 절미인데, 이를 이용해 막객 구윤익과 책객 허숙이 가운데서 농간을 부려 차임할 때 비방하는 말들이 대다수였다. 즉 책객 등 수령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작을 부려서 향임의 자리를 제수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향임은 조선시대 지방 자치기관인 향청의 임원으로 조선시대 지방자치기구인 유향소에 적임되었다.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는 자문기관으로 지방의 풍기

55) 정약용, 장순범 역, 『목민심서』 공전 6조/ 제5조 도로, 한국고전번역원, 1986.

를 단속하고 향리의 악폐를 막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향소에 배치하는 관리를 임명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한편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관아 기생과 책방의 관계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 책방 전익량의 폐해가 나타나는 부분에서 전익량은 관아의 기생과 친숙관계이다. 뒤이어 전 현감 목만중이 대저 총애 받는 기생에게 정신이 홀려 완전히 체통을 잃고 기생의 오라비와 책객이 한통속이 되어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기록도 보여진다. 즉 책방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아니더라도 책방과 기생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자료들의 검토를 통해 관리들의 폐단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빠지지 않고 책방이 등장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이 힘든 상황임에도 돌보지 않고 죄의 판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자신의 유흥에만 빠져 있는 관리를 볼 수 있고 그 옆에서 책방은 그 폐단을 도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의 억울함은 늘어만 가고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밖에 아객, 토착인 등 책방은 여러 사람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함부로 남용했다.

책방의 폐단은 왕에게 전부 보고 되고 그에 따라 왕이 직접 벌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책방은 관료체제 안에 속해 있지 않고 외직을 나갈 때 수령이 사사로이 데려가는 자리라고 앞서 살펴보았다. 책방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사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라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책방의 존재를 왕이 알고 있었으며 왕이 직접적으로 벌을 내리라고 지시한다. 이는 책방의 폐단으로 인한 문제가 단순히 지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문제가 될 만큼 컸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 자료에서는 수령이 책방에게 육방의 지방 관청의 아전과 하인들 관리를 도맡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책방은 사사로이 데려가기 때문에 외직을 나갔을 때 수령은 누구보다 책방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수령은 책방을 앞세워 모든 일을 하고자 했다. 이때 책방은 자신이 모시는 수령에게 피해를 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자신의 이속을 채운다. 나아가 뇌물을 받을 때에는 자신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이를 상인에게 되팔아 더 큰 이익을 보기도 한다. 또한 백성들에게 함에 있어서는 수령의 권위에 기대어 위협적으로 말하고 그 사이에서 이익을 얻는다. 책방은 수령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공금을 횡령하고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런 책방은 수령에게나 백성에게나 이익이 되는 인물은 아니었다.

마지막 자료에서도 역시나 비장, 책객들을 경계하는 부분과 그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비장과 책객에게 사적인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폐단을 일으킬 기회를 주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사사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잘 감시하고 생활 이외는 어떠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그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부분은 다른 자료들에 비해 짧게 나타나 있지만 구체적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백성들을 동물 대하듯 하며 각종 만행을 저질렀다.

위의 자료들은 책객이 저질렀던 폐단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공역을 감독하고 민정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식으로 관직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책방이 청렴하게 일을 수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금을 탐하고 농간을 부려 백성들을 힘들게 했으며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수령이든 백성이든 그 누구한테 피해가 간대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전해지는 기록에는 수령들이 외직을 나갈 때, 아전들과 손을 잡고 나라의 재정을 어지럽히는 책방을 데려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보인다.

자제 한 사람이 따라가면 좋을 것이다. 요즈음 풍습에 소위 책객(冊客)이라는 것이 있어 회계를 맡고 있는데, 이는 예(禮)가 아니니 없애야 한다. - 다음 병객조(屏客條)에 자세히 나온다. - 만약 자기의 글솜씨가 거칠고 졸렬하면, 한 사람쯤 데리고 가서 서기(書記)의 일을 맡기는 것은 좋다. …… 총괄하여 말하면 자제 이하의 관속(官屬)들과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⁵⁶⁾

이는 부임 시 행장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부분이다. 동행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데려가는 것을 지양해야 할 인물로 책방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과 자제 이하의 관속들의 접촉을 금한다. 새로운 아전이 오면 수리(首吏)를 불러 철저히 아전과 하인 사이에 어떠한 교류도 없게 할 것을 명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책방의 폐단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책방은 수령의 최측근으로 여러 잡다한 일은 물론 글솜씨가 뛰어나 문서작업도 돕는다. 그리고 회계의 일을 주로 맡아서 한다. 바로 회계의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

56) 정약용, 이정섭 역, 『목민심서』 부임 6조/ 제2조 치장, 한국고전번역원, 1986.

회계 일을 책방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바람에 아전과 책방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생겼고 이러한 폐단이 생겨난 것이다. 아전, 관리, 하인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책방이 아전과 손을 잡고 공금을 사사로이 취하여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위에서는 부임 시에 되도록 최소화하여 데려가고 자제 이하가 관속들이 접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다.

지금까지 역사 기록 안에서 책방이 어떤 인물이며 조선 후기 책방으로 인해 어떤 폐해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책방은 수령이 외직을 나갈 때 사사로이 데려가는 자로 글재주가 뛰어나 문서 일과 함께 수령의 옆에서 회계 일을 맡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회계를 담당하는 책방은 여러 아전과 관리, 하인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아전과 관리의 강요를 받거나, 심지어 직접 제안하여 나라의 돈을 횡령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

또한 책방은 수령의 측근에 있는 존재기 때문에 수령의 권력을 곧 자신의 권력처럼 이용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권력에 기대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방해되는 자는 물론이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심지어는 자신이 모시는 수령에까지 피해가 가도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기록들은 대부분 양반들에 의해 전해진 것이다. 같은 양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책방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 없는 존재로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대상이며 없어져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반들이 책방의 횡포를 기록으로 남긴 것은 책방들의 잘못된 형태가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여 결국 체제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양반들의 우려대로 책방의 횡포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책방을 향한 백성들의 불만과 분노는 커져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책방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여도 양반이고 수령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책방을 향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또한 백성들은 양반들처럼 기록을 통해 책방에 대한 비판을 남길 수도 없는 처지였다. 때문에 당시 백성들은 현실에 대한 분노, 책방에 대한 불평을 자신들의 문학인 판소리 속에 나타내었다. 판소리 속에 책방을 등장시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물로 삼고 풍자하며 희화화시켜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책방은 당시에 양반에게도 민중에게도 비판의 대상이었고 이 때문에 판소리 <강릉매화타령> 속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그려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그동안 <강릉매화타령>은 그저 골생원을 골탕 먹이고 더 나아가 색을 탐하지 마라는 주제로 본 것과는 다른 측면으로, 골생원이라는 인물 자체에 집중하여 <강릉매화타령> 안에서도 골생원을 통해 당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현실 비판을 드러 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강릉매화타령>의 판소리사적 의의

<강릉매화타령>은 창과 사실이 정확히 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자료들을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뿐 그 이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강릉매화타령>이 주목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전판소리였기 때문이었다.

<강릉매화타령>의 실전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전되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 전해지는 자료들이 많이 없고 판소리는 구비전승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변모양상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강릉매화타령>을 포함한 실전 7가가 전승 5가보다 판소리사적으로 갖는 의의가 더 낮다고 평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전 판소리들이 왜 ‘실전’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판소리가 실전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해 왔다. 먼저 판소리 향유층의 이동과 실전의 문제를 연계하여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 왔다. 판소리는 원래 평민층의 문학이었으나 19세기를 지나면서 양반층으로 향유층이 이동했다. 원래 평민층의 문학이었던 판소리 안에는 양반층의 이념과 규칙에 어긋난 내용이 많았다. 때문에 향유층이 이동함에 따라 판소리 안에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향유층에 맞추어 변화하게 되었다.

김흥규는 실전된 7마당은 19세기 판소리 주류 대상이 양반층이라는 것을 파악해 보았을 때 그들의 이념이나 가치에 어긋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는 현재 실전 7가가 전승에서 제외되어 전해지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현재 전하지 않는 실전 7가는 일부의 평민층이나 연희 등에서 불리다가 점차적으로 실전되었다고 본다.⁵⁷⁾

조동일은 향유층이 양반으로 이동함에 따라 판소리가 놀이채를 받고 양반 앞에서 공연되었고 양반에게 놀이채를 받고 불리는 판소리는 양반들의 취향에 맞추어 불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때문에 양반층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실전 7가는 좋

57) 김흥규, 「판소리의 社會的 性格과 그 變貌」, 『藝術과 社會』, 민음사, 1979, 80-82면.

아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7가가 더 이상 전승되지 못하고 실전되었다고 말했다.⁵⁸⁾

그 다음으로 실전 7가가 작품의 질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되었다고 보는 이해 방식이 있어 왔다. 즉 현실반영과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해지지 못하고 실전되었다는 것이다. 조동일은 향유층의 이동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면서도 그에 덧붙여 실전 7가는 전승 5가에 비해 작품의 구성이 부족하여 다른 여타 판소리들 사이의 경쟁에서 탈락되었다고 말했다.⁵⁹⁾

김영범은 <변강쇠가>를 제외한 6가는 내용의 구조가 단순하고 작품 내 인물들의 상호관계에서 사회비판이나 대립, 갈등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지적했다. 즉 현실성에서 멀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작품의 측면에서도 떨어져 실전되었다고 보았다.⁶⁰⁾

김종철은 김영범과 같은 맥락에서 7가의 실전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 5가는 주인공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와 싸우지만 실전 7가의 주인공들은 단지 부정적인 인물일 뿐 사회변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이는 19세기가 신분제가 무너지고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시대의 변화와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가는 실전된 것이라 말했다.⁶¹⁾

이렇듯 기존 연구들에서는 판소리가 실전되는 이유를 크게 두 맥락 안에서 살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강릉매화타령>이 실전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김현선은 실전 판소리 가운데 <강릉매화타령>은 근원설화가 비교적 분명하게 남아 있는 작품이라 말했다. 근원설화에서 현실적 풍자성이 더해져 <강릉매화타령>이 형성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극적 긴장, 흥미를 미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한계가 나타났다. 바로 이 점이 <강릉매화타령>이 더 이상 전승되지 못하고 탈락한 이유라고 보았다.⁶²⁾

정흥모는 <강릉매화타령>이 성적인 소재를 가지고 양반을 풍자하는 작품인데, 이야기 전개에서 풍자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이 양반적 질서를 뿌리에서부터 부정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실전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초기 <박신일화>에

5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9, 524면.

59) 위의 책.

60) 김영범, 「朝鮮後期 판소리 談論과 民衆集團의 集團意識」, 『韓國會報』 43호, 1986, 118면.

61) 김종철, 「실전 판소리의 종합적 연구」, 『판소리 연구』 3, 판소리학회, 1992, 152-153면.

62) 김현선, 「<무속이타령>과 <강릉매화타령> 형성 소고」, 『경기교육논총』 3, 경기대 교육대학원, 1993.

서는 사대부의 풍류담적 성격이 강했지만 이후 이야기 전개가 다양해지고 양반의 풍자도 날카롭게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19세기 판소리사에서 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양반계층에게 외면을 당했고 그로 인해 결국 실전되었다고 말한다.⁶³⁾

마지막으로 김종철은 <강릉매화타령>은 양반층과 중서층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희극적으로 그리고 표현 또한 비속적으로 나타냈다고 말한다. 이는 양반층의 기호에 어긋났고, 이 때문에 실전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실전 7가가 실전된 이유 중 하나로 골계미에 치우쳐 판소리의 중요한 정서인 울리고 웃기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없는데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강릉매화타령>이 해당한다고 말했다.⁶⁴⁾

<강릉매화타령>이 실전된 이유에 대한 이상의 지적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골생원의 직책이 책방으로 설정된 것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강릉매화타령>을 정확히 해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골생원의 직책이 책방으로 설정된 것에 주목한 경우 <강릉매화타령>의 판소리사적 위상 또한 조금은 다르게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원설화에서부터 판소리 <강릉매화타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속임을 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인물의 변화이며 사설정착본에 이르러 속임을 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책방이라는 직위로 설정되었다. 또한 속임을 당하는 자에 대한 서술이 판소리 <강릉매화타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정적, 비판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속임을 당하는 자에 주목하여 왜 부정적, 비판적으로 그려지며 그 위치에 해당하는 자가 왜 하필 책방인지 여러 기록을 통해 살펴보았다. 즉 당시에 책방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가를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책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일삼는 등 양반들에게도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 민중들이 비판하고자 했던 대상, 나아가 양반들조차도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이 바로 책방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강릉매화타령>이 그저 골생원을 놀려서 골탕 먹이기라는 모티프를 가지고 색을 탐하지 말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고 본 것에서 나아가 여타 판소리의 지향점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강릉매화타령> 속에도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사회 속에서 대립과 갈

63) 정흥모, 「강릉매화타령형 이야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62-64면.

64) 김종철, 「실전판소리의 종합적 연구-판소리사의 전개와 관련하여」, 『판소리 연구』 3, 판소리학회, 1992, 152면.

등을 보여주는 모습이 담겨 이야기된 것이다.

나아가 속임을 당하는 자가 책방으로 그려진 것에 주목해 <강릉매화타령>을 새롭게 해석한 것은 <강릉매화타령>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품인 <배비장타령>, 나아가 <무숙이타령>을 파악함에 있어 기존 연구와 달리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향을 제시한다.

<배비장타령>은 속임을 당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인물이 비장으로 그려진다. <무숙이타령>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상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강릉매화타령>의 책방, <배비장타령>의 비장, <무숙이타령>의 상인은 신분제가 해체되어 가던 조선후기 사회에서 새롭게 형성되어 가던 중간계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중간계층은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긍정적 역할도 수행했으나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층들에게 여러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강릉매화타령>, <배비장타령>, <무숙이타령>을 중간계층에 대한 당대 사회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이 투영된 산물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한편 판소리 전승과 관련하여 전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판소리를 보면 핵심적인 인물이 존재하고 이 인물을 통해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한다. 하지만 실전 판소리는 전승된 판소리들처럼 풍자적이거나 비판적인 모습이 나타나지만 핵심적인 인물을 통한 방향성 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실전 판소리는 보편성 획득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매화타령>의 경우 정현석(鄭顯奭, 1817~1899)의 『교방가요(教坊歌謠)』(1872)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진주 관아에서는 그때까지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강릉매화타령>이 관아 주변의 이야기를 다루는 관변문학으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특정 지역의 관아 주변에서는 신재효의 개작 대상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실전 판소리 가운데 하나인 <강릉매화타령>이 근원설화에서부터 판소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모양상 중 속임을 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최종적으로 왜 책방 골생원으로 그려졌는가에 주목해 그 의미를 살폈다.

우선 <강릉매화타령>은 실전 판소리이기 때문에 일부 문헌에서 짝막한 기록으로 찾아 볼 수 있을 뿐 정확하게 전해지는 자료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에서도 <강릉매화타령>에 관해 작품론적이나 판소리사적 등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다가 김현선, 김석배에 의해 <강릉매화타령>의 사설정착본인 <매화가>와 <골생원전>이 소개되었고, 그 후부터 <강릉매화타령>에 대한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강릉매화타령>의 근원설화로 언급되어진 <박신일화>, <강릉홍장설화>, <흑기위귀> 3편과 사설정착본인 <매화가>, <골생원전> 2편을 비교해 주요 변모 양상을 파악했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근원설화와 사설정착본에서는 속임의 구조를 바탕으로 속임을 계획하는 자(A), 속임을 당하는 자(B), 속임의 계획을 실행하는 자(C)에 해당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전환과정에서 차이가 존재했다. 서술의 강도, 주변 인물들의 변화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났지만 가장 두드러지고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주요 인물 3명 중에 속임을 당하는 자인 B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었다.

먼저 근원설화 속에서 <박신일화>, <강릉홍장설화>, <흑기위귀> 순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속임을 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인물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속임을 당하는 인물의 변화를 살피는 가운데 속임을 계획하는 인물과의 관계에 따라 속임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박신일화>에서는 A의 신분이 B보다 낮다. 때문에 속이기는 해도 그것이 B를 골탕 먹이거나 놀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강릉홍장설화>, <흑기위귀>에는 B가 A보다 아랫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놀리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강릉홍장설화>, <흑기위귀> 두 근원설화에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B를 속여 놀리는 것에서 골탕 먹이는 것이 추가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B는 색을 거부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흑기위귀>에서 색을 거부하는 B는 속임을 계획하는 자와 친구 사이로, B가 색을 거부하는 것이 껄뽀하여 속임을 계획한다. 즉 B를 놀리고 골탕 먹이려는 목적으로 속임을 계획하는 것이다. 반면에 <강릉홍장설화>에서도 B가 색을 거부한다는 특징을 갖지만 B를 놀리는 것은 상처 후 재혼하지 않는 친구의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골탕 먹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B는 사설정착본 <매화가>, <골생원전>에서 책방 골생원으로 그려진다. 작품 내에서 그려진 골생원의 모습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며 여색만 밝히는 한심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즉 골생원이라는 인물은 이름에서부터 그 존재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속임을 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B가 왜 책방으로 그려진 것이며 비판적으로 그려졌는지 당시 조선 후기에 과연 책방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평가 받았는지 역사적 기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책방은 수령이 외직을 나갈 때 사사로이 데려가는 자로 관료체제에 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글쓰기를 잘해 수령을 도와 문서 일을 처리하였고 회계 일을 또한 맡아서 하는 등 누구보다 수령과 가까운 위치에서 수령을 보좌하며 일을 수행하는 존재였다. 이 과정에서 책방은 수령의 권세에 힘입어 자신의 이득을 취했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백성을 괴롭히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때문에 책방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는 커져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없었다.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학인 판소리 속에 담아 그 안에서 책방을 희화화시키고 위선도 폭로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강릉매화타령>의 주제를 골생원을 놀려 골탕 먹이기는 것을 통해 색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을 주제로 보는 것에서 실은 <강릉매화타령> 안에는 앞선 주제와 더불어 당대현실과 사회 비판적 모습이 드러나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공금을 횡령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책방의 폐단은 양반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같은 양반 계층에게도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비판의 대상으로 여겨진 것이 책방인 것이다. 즉 책방은 백성에게나 양반에게나 모두에게 부정적, 비판적으로 인식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책방 골생원이라는 인물에 주목하여 살펴본 <강릉매화타령>은 <배비장타령>, 나아가 <무숙이타령>을 파악하는 데도 새롭게 해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강릉매

화타령>의 책방, <배비장타령>의 비장, <무숙이타령>의 상인은 조선후기 사회에서 신분제가 해체되어 가면서 새롭게 형성되어 가던 중간계층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사회변화를 이끄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층에게 여러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러한 중간계층을 바라보는 당대 사회의 부정적, 비판적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본 논문을 통해 <강릉매화타령>은 지금까지 전승되는 전승 5가보다 오히려 평민층의 입장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나아가 전해지지 않는 실전 7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때문에 판소리사는 전승 5가에만 집중되어 중요성을 평가해왔고 실전 7가는 그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지만 실전7가 또한 전승 5가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편 <강릉매화타령>에 대해 살펴보는 중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다. <강릉매화타령>의 사설정착본으로 <매화가>, <골생원전>이 있다. 고전문학들을 살펴보면 보통 주인공의 이름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판소리의 사설정착본임이 분명함에도 두 사설정착본은 제목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매화가>는 매화를 제목으로 하여 ‘가’라고 되어 있고 <골생원전>은 골생원을 제목으로 하여 ‘전’이라고 되어 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제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추후 <매화가>와 <골생원전>에 대한 세세한 자료 분석 및 비교를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김기형 역주, 『적벽가·강릉매화타령·배비장전·무숙이타령·옹고집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김진영(외) 편저, 『실창 판소리사설집』, 서울:박이정, 2004.

논저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서울:교학사, 1981.

김기형 역주, 『적벽가·강릉매화타령·배비장전·무숙이타령·옹고집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김석배, 「골생원전 연구」, 『고소설연구』 14, 한국고소설학회, 2002.

_____, 「<강릉매화타령>의 판짜기 전략」, 『문화와 융합』 26, 2004.

김영범, 「朝鮮後期 판소리 談論과 民衆集團의 集團意識」, 『韓國會報』 43호, 1986.

김은희, 「<매화가>에 대한 일고찰」, 『반교어문연구』 22권 0호, 반교어문학회, 2007.2.

김종철,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창을 잃은 판소리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6.

_____, 「실전 판소리의 종합적 연구-판소리사의 전개와 관련하여」, 『판소리 연구』 3, 판소리학회, 1992, 152-153면.

_____, 「<배비장전>유형의 소설 연구」, 『관악어문연구』 제10집, 서울대 국어국문과,

- 1985.
- 김현선, 「〈강릉매화타령〉 발견의 의의」, 『국어국문학』 109, 국어국문학회, 1993.
- _____, 「〈무속이타령〉과 〈강릉매화타령〉 형성 소고」, 『경기교육논총』 3, 경기대 교육대학원, 1993.
- 김흥규, 「房子와 말뚝이 : 두 典型의 比較」, 『한국학논집』 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8.3.
- _____, 「판소리의 社會的 性格과 그 變貌」, 『藝術과 社會』, 민음사, 1979
- 박일용, 「구성과 더듬형 사설 생성의 측면에서 본 판소리의 전승 문제 - <배비장타령>, <강릉매화타령>, <계우사>의 예를 중심으로」, 『판소리 연구』 14, 판소리학회, 2002.
- 오수창, 「춘향전에 담긴 일상의 역사현실과 비판의식」, 『진단학보』 114, 진단학회, 2012.
- 이문성, 「인물작명과 골생원의 형상으로 본 <강릉매화타령>」, 『판소리 연구』 30, 판소리학회, 2010.
- 이해구, 「송만재의 관우희」, 한국음악연구, 국민음악연구회, 1957.
- 인권환, 「失傳 판소리 사설 연구 : <강릉매화타령>, <무속이타령>, <옹고집타령>을 중심으로」, 『동양학』 2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6. 69-108면.
- _____, 「판소리의 실전 원인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12.
- 정흥모, 「〈강릉매화타령형 이야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9.
- 한정미, 「〈梅花歌라〉의 전반적 이해」, 『판소리 연구』 10, 판소리학회, 1999.

